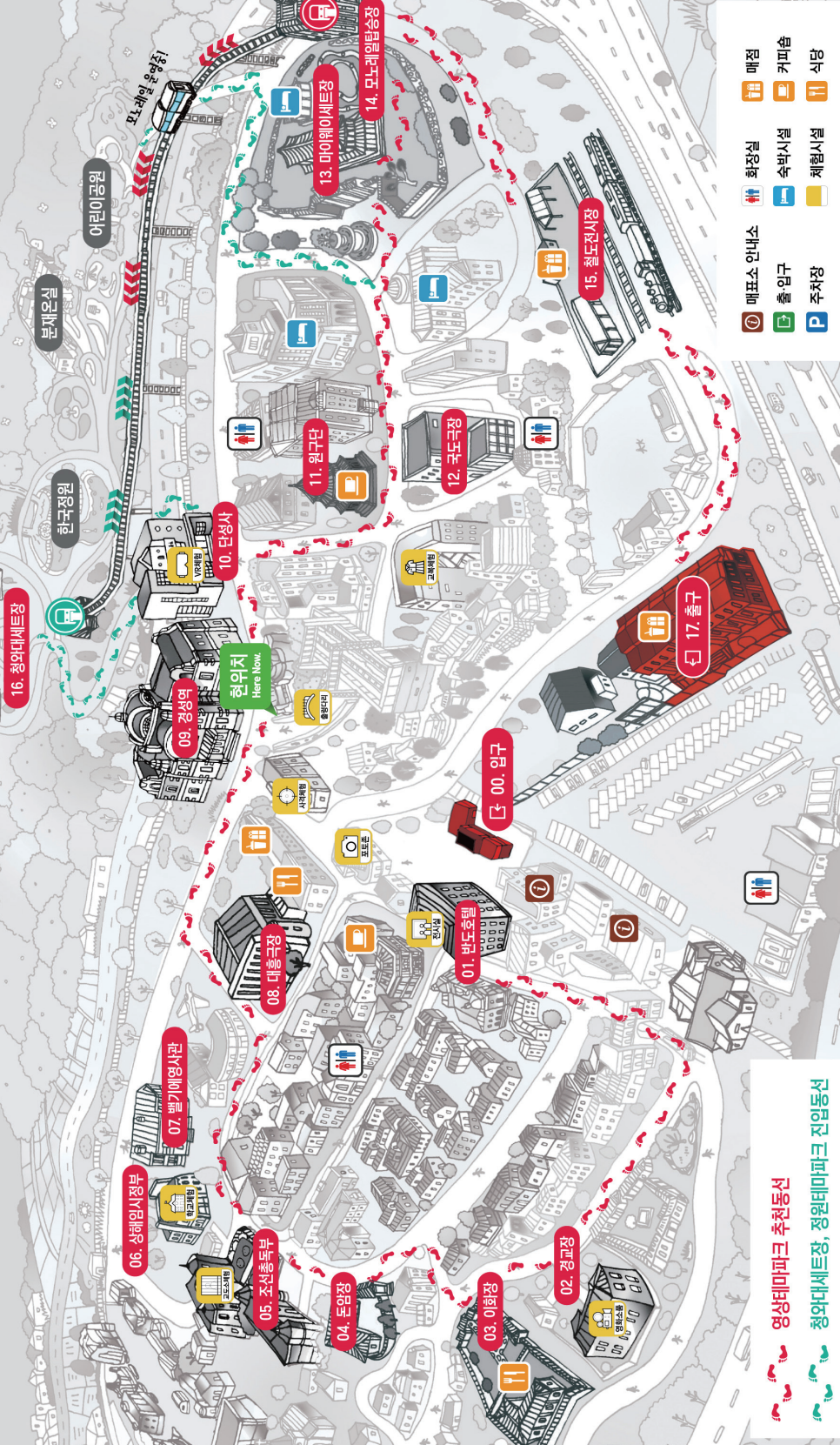


합천영상테마파크

HAPCHEON Movie Theme Park



- 매표소 안내소
- 출입구
- 주차장
- 매점
- 화장실
- 체험시설
- 숙박시설
- 커피숍
- 식당

영상테마파크 추천동선
 청와대세트장, 경원테마파크 진입동선

문화예술·콘텐츠로 창의적 미래를 여는 경남 문화의 파트너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 지역문화예술 진흥 | 문화 콘텐츠 개발 | 영상산업 육성 지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마스코트 '능소니'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tel 055)230-8600 fax 055)230-8699

www.gcaf.or.kr

주요 소통채널(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검색

행복한 **경남**을 바라는 **경남은행**의 마음

당신이 웃으면 경남도 웃습니다
경남의 행복 중심에 언제나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BNK

함께 달려온 60년 함께 열어갈 100년

아름다운 농촌과
건강한 먹거리,

농업 농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의 힘으로 달려온 농협 60년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유통을 새롭게
디지털로 놀랍게
지역사회와 바르게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



온실가스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온도는?
산업화 전보다
2°C 상승

2°C 상승 시 예상 피해



- 해수면 상승
- 남극 해빙 및 그린란드 빙상 손실
- 물 부족 인구 50% 증가
- 생물 서식지 절반 이상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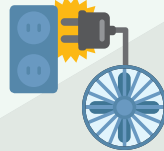
탄소중립(Net-Zero)이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 0'이 되게 만드는 것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사항

- ▶ 에어컨보다 선풍기, 부채 사용하기
-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빼 놓기



▶ 샤워 시간 1분 줄이기



▶ 잘 때는 스트리밍 끄기



밤

eco



▶ 양치할 땐 양치컵 사용하기

아침

친환경 살림도구 SNS 업로드

▶ 전기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하기

▶ 가까운 거리는 걷기

회사

▶ 오래된 이메일 삭제하기

▶ 기후위기 주위에 알리기

▶ 텀블러 사용하기

▶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기

▶ eco백 사용하기

▶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 음식은 먹을 만큼만 구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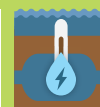
▶ 마트

eco

K water 탄소중립 노력



Net-Zero 광역정수장
배출하는 탄소량만큼 탄소를 감축하는 정수장



수열에너지
하천 및 원수관로를 흐르는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 공급



수상태양광
물 위에서 태양광을 활용해 청정에너지 발전

합천새천년관광(주)

모두투어/하나투어상품 10명이상 예약자 공항수송 무료

여행의 모든 것! 국내/국외여행/항공권
전세버스 28인승 우등버스 25인승
45인승 등 총 40대이상 보유!



고령지점 054-956-7777
성주지점 054-931-7866
합천지점 055-933-3355
이재근 대표 010-8822-7888



깨끗한 자연이 어우러진 고장 **합천군**

✓구입문의 055.933.9112



www.haewain.co.kr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50227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1184(금양리)
전화 055.933.9100 / 9112 팩스 055.933.9110
메일 hcat9112@naver.com

합천군 농특산물 공통브랜드 해외인 공식소싱물 - 회원가입 후 모든 비회원으로부터 구매 수 있습니다.

Contents

축사	10
인사말	14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포스터	20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트레일러	21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슬로건	22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상영일정	23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시상내역	26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심사위원	27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행사정보	29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상영작 소개	
개막작	31
경쟁작	35
초청작	82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구성	106

대한민국 독립영화인에게 인정받는 영화제로 성장하길



박완수 _ 경상남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천년의 문화와 깨끗한 자연이 어우러진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화제 개최에 애써주신 (사)합천군관광협회의회 및
합천 수려한영화제 집행위원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독창적이고 수준높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독립영화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소소한 일상의 단면을 포착한 작품에서부터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까지 92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작품들을 누리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독립영화의 성과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역 영화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독립영화인에게 인정받는 영화제로 발전해 나가면서
독립영화의 위상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일상 속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독립영화 제작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 조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하신 영화인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합천 수려한영화제 성공을 영화인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조삼술 _ 합천군의회 의장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관객, 영화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장 조삼술입니다.

역세의 은빛 물결이 너울대는 2022년 가을,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가 합천영상테마파크 및
합천시네마에서 다시 한 번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제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행사 관계자와 출품해주신
감독, 출연배우, 관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영화제는 이번으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영화제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들로
전국 영화인들의 창의적인 실험과 도전정신의 발현이 어우러져
수려한영화제만의 특별한 매력을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영화제에는 총 925편의 영화가 출품이 되어,
그중에서 특별히 엄선된 38편 등, 총 60여편의 독립영화가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
많은 영화인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우수한 창작자의 작품을 소개하고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합천 수려한영화제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 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힘찬 응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온실 합천영상테마파크

김윤철 _ 합천군수
합천 수려한영화제 조직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산실 합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골마을에서 우연히 찍은 영화 한편을 계기로 시작된
합천군의 영상 및 관광산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실내 스튜디오 등의
다양한 촬영명소 제작과 황매산 개발 등을 통해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우수 독립영화 소개 및
영화인과 관객이 어우러지는 영화문화축제를 통해
독립영화는 물론 경남 및 합천지역의 영화영상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는 K-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이며,
재능있는 영화인이 합천에서 발아해 만개할 수 있도록
수려한영화제가 한국 영상산업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925편의 다양한 독립영화가 출품되었으며,
38편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수려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깊어가는 합천의 가을을 영화제와 함께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함께 나와보자'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자는 다짐과 응원의 목소리



강길수 _ (사)합천군관광협회의회 이사장

반갑습니다.

영상 콘텐츠 촬영의 메카로 자리 잡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를 무사히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올해 세 번째의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작품 수준과 규모 면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영화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영화제 경쟁부문 작품작 925편의 예심 과정을 두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심사위원들의 후일담은 수준 높은 영화들의 출품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수려한영화제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 위기와 불안한 국제정세 등 대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 '합-함께 나와 보자'도 같은 관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인과 관객, 지역주민들이 영화제를 통해 다함께 어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자는 다짐이자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보자는 응원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합천의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적 여건과 문화적 역량을 결집시킨 문화관광의 진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단순한 영화인의 행사를 넘어 합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의 수준 높은 영상문화 향유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제는 합천영상테마파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합천군이 드라마틱한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영화제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합천군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합천 수려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희 _ 합천 수려한영화제 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올해로 합천 수려한영화제가 3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첫 회를 치루고 또다시 2회 영화제도
행사의 중단을 염려할 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 개최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무사히 1, 2회 영화제 개최를 마치고
비로소 엔데믹시기에 3회 영화제 개최를 하게 된 지금,
안도의 마음보다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시대물 세트장인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촬영 뿐 아니라
전국의 영화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영화축제를
만들어 보자 했던 초심이 비로소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독립영화인들에게 작품을 상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상을 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영화 축제로서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무엇을 더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합천을 찾은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합천의 자연이, 합천에 가볼 곳이, 합천의 영상테마파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오길 잘했다고 말합니다.

합천의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이 영화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합천만의 색깔로, 영화인과 관객들에게 내실있고 의미있게 다가가는,
작지만 알찬 합천 수려한영화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초입일 뿐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최선을 다해
합천 수려한영화제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 시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포스터 이미지 메이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메인 공간인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영화의 창작부터 상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화를 찍고 있는 현장으로부터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하고, 본 영화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화폭에는 영화 만들기 시작부터 관객들이 영화를 만나고, 다른 이들과 영화에서 받은 감동을 나누는 모습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커다란 캔버스에 밑그림도 없이 작가의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영화'와 함께하는 커다란 '합'의 장을 표현해보았다.

포스터를 그린 장권호 감독 겸 작가는 홍익대학교와 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서 미술과 미디어를 공부하였다. 장편영화 <내비게이션>을 연출하였으며, 단편영화 <탄>이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장편영화 <요선>으로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장편 경쟁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제44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트레일러는 김덕기 작가의 작품 <NAPOLI N°5>이다. 이 작품은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Non Fungible Token) 기법으로 제작한 영상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김덕기 작가는 동양화의 표현기법이나 재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따뜻한 시선으로 행복의 중심인 '가족'을 캔버스에 담아낸다. 초목이 무성한 산과 햇살에 빛나는 물이 있는 풍경이 꼭 푸르른 자연으로 가득한 합천과 닮았다. 나들이를 나온 듯 자전거를 타고 들판을 지나가는 가족과 강아지들은 보는 사람에게 행복의 기운을 전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을 그린 김덕기 작가의 작품은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슬로건인 '함께 나와 보자'와도 잘 어울린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이 영화 상영 전, 작가의 온전한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며 마스함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

2022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상영일정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슬로건은 '함-함께 나와 보자'다.

'함' 천과 '습(더할 함)'을 담은 '함'은 영화인들과 관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영화제라는 축제 안에서 다함께 '함'을 도모하자는 포부를 담았다. '함께 나와 보자'는 '나와 함께'의 의미도 있지만, '나와서 보자'의 의미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자는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다짐이자 응원이다. 멀리서 보면 그저 '함'으로 보이는 슬로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함께 나와서 보자'를 확인할 수 있듯, 영화제를 통해 우리도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마주할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1관 단성사 시간표

GV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시간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0일 (목)	10월 21일 (금)	10월 22일 (토)	10월 23일 (일)	10월 24일 (월)
10:30		경쟁 1 GV 88분	초청-개막작 GV 60분	경쟁 7 GV 90분	초청 3 27분
		주차장의 밤 UNIQUE TIME 겨울방학 별짓	유비쿼터스19 그렇고 그런 사이	지붕 위의 두 남자 터 팡 인젠간 우리가 다시 꼭꼭 해야 하는 이유	할아버지의 생일 패밀리 디너 연기 1에서 온 여자, 6에서 온 남자 분리배출
13:30		경쟁 5 GV 90분	경쟁 2 GV 89분	경쟁 6 GV 89분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수상작 상영
		박문수씨의 기일 타란투너 예술이라니 동무여 희라의 순간	사라지는 것들 하수아비 두 여인 햇볕을 볼 시간	배우 송경을 찾아서 로봇이 아닙니다. 현수막 어나더타운	
16:00		경쟁 8 GV 95분	경쟁 4 GV 87분	경쟁 3 GV 88분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수상작 상영
		머드피쉬 거북이가 죽었다 미스터장	벌레 가을바람 불르면 춤다 텐트틴트	사라 씨티백 블랙독 언니에게	
18:30	개막식+개막작 19:00 90분	경쟁 9 70분	경쟁 10 GV 62분	경쟁 11 100분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수상작 상영
	유비쿼터스19 그렇고 그런 사이	시인들의 창	다섯 번째 홍주	그 겨울, 나는	

2관 대흥극장 시간표

GV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시간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1일 (금)	10월 22일 (토)	10월 23일 (일)	10월 24일 (월)
11:00	초청 3	초청 2 GV	경쟁 9 GV	경쟁 10
	29분	88분	70분	62분
	소풍 할머니의 전쟁 춧불 우리들의 일그러진 일상 빛나는 날들 재활용	마음에 들다 야행성 연기연습 영미 사진관	시인들의 창	다섯 번째 흥추
14:00	경쟁 11 GV	경쟁 14 GV	경쟁 15 GV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수상작 상영
	100분	90분	100분	
	그 겨울, 나는	진주의 진주	신세계로부터	
17:00	경쟁 12 GV	경쟁 13 GV	초청 2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수상작 상영
	87분	144분	88분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마음에 들다 야행성 연기연습 영미 사진관	

3관 합천시네마 시간표

초청작은 상영 전 영화전문가의 작품해설이 진행됩니다. (20분 소요예정)

	10월 21일 (금)	10월 22일 (토)	10월 23일 (일)
11:00	초청 1	초청 1	초청 1
	136분	95분	108분
	춘향뎐	마부	오마주
14:00	초청 1	초청 1	초청 1
	95분	136분	138분
	마부	춘향뎐	경마장 가는 길
17:00	초청 1	초청 1	경쟁 12
	138분	108분	87분
	경마장 가는길	오마주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20:00	경쟁 14	경쟁 15	경쟁 13
	90분	100분	144분
	진주의 진주	신세계로부터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본상 시상내역**

대상 1편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선정기준 : 전체 경쟁부문의 작품 중 작품성이 가장 우수하고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의미와 가장 잘 부합하는 작품에 수여

우수상 2편

- 상장 및 상금 총 600만원
- 선정기준 : 경쟁부문의 작품 중 작품성이 우수한 작품에 수여
- 국내경쟁 및 지역경쟁부문 각 1편씩 선정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부문상 시상내역**

관객상 1편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선정기준 : 전체 경쟁부문의 작품 중 관객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1편에 수여

배우상 1편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선정기준 : 전체 경쟁부문의 작품 중 본심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본심 심사위원**



이명세 영화감독

서울예전 영화과를 졸업하고 1979년 영화계에 입문하여 1988년 영화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1990>, <첫사랑, 1993>, <형사 Duelist, 2005>, <M, 2007> 등으로 대중상영화제와 청룡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감독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후쿠오카아시아영화제 그랑프리, 도빌아시아영화제 대상, 감독상 등을 수상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999>는 미국의 선댄스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어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시네아스트이다.



문석 프로그래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로 활동했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영화전문지 <씨네21> 기자 및 편집장을 지냈다. 이후 영화 특화 소셜 펀딩 업체 펀딩21에서 <그리고 싶은 것>, <누에 치던 방> 등의 제작 및 마케팅 비용을 조달했고, 영화 수입 배급사인 씨네룩스에서는 <렛 더 선사인 인> <레이디 맥베스>, <더 길티> 등을 수입 배급했다. 2017년에는 부천국제영화제 산업프로그래머를 맡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상물등급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중이다.



김순모 PD

2012년 영화 <피에타, 2012>의 프로듀서로 데뷔하였으며, <피비우스, 2013>, <일대일, 2014>, <그물, 2016>, <생일, 2019>등 다수의 작품 프로듀서로 참여하였다. 영화사 아토ATO의 창립 멤버로 활동중이며, <우리들, 2016>, <흙, 2018>, <소공녀, 2018>, <샘, 2018>, <애비규환, 2020>, <최선의 삶, 2021>등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예심 심사위원



박승열 영화감독

단편영화 <밤과 꿈, 2013>이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등에 초청받았다. 원향라와 함께 영화제작사 <사랑하자>를 설립한 후 한 연인의 일상사를 다룬 장편영화 <가끔 구름, 2018>을 함께 만들었다. 이 작품은 2018 인디포럼 폐막작, 전북독립영화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두 번째 장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를 원향라와 함께 만들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뉴디렉터스뉴필름즈 등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초청되었고 수상하였다.



김은정 영화평론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소속 영화평론가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장으로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영화의전당 시네도시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영화읽기 강사, 영등위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인미 영화감독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연출을 졸업했다. 단편은 <마침내 날이 샌다, 2013>, <만년설, 2015>, <토끼의 뿔, 2015> 등을 연출했으며 <토끼의 뿔>은 2015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단편경쟁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첫 장편영화 <만인의 연인, 2021>과 옴니버스 영화 <말이야 바른 말이 지, 2022> 중 <새로운 마음>을 각본, 연출했다.



김영조 영화감독

부산 출생.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 대표.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파리8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장편 다큐멘터리 <가족초상화, 2007>, <태백, 잉걸의 땅, 2008>, <가족초상화 리덕스, 2013>, <사냥, 2013>, <그림에도 불구하고, 2015>, <편지불, 2018>을 연출했다.



이형석 프로그래머

다수의 단편영화를 연출하여 부산국제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서 수상하였으며, 장편영화 <용문, 2013>, <포항, 2014>, <국광교회, 2017>, <좋은 사람, 2020>, <요선, 2021> 등에 프로듀서로 참여하였다. 2021년부터 합천 수려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중이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개막식

일시 2022년 10월 20일(목) PM 7시

장소 합천영상테마파크 단성사

개막작 오태경 감독 <유비쿼터스19>
김인혜 감독 <그렇고 그런 사이>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폐막식

일시 2022년 10월 24일(월) PM 5시

장소 합천영상테마파크 단성사

폐막작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수상작 상영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영화관람 및 발권 안내

※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단성사 및 대흥극장 유료 상영, 합천시네마 무료 상영을 실시합니다.

-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위치한 '단성사'와 '대흥극장', 합천 읍내에 있는 작은 영화관 '합천시네마'에서 상영합니다.
- 단성사, 대흥극장은 각 극장에서 티켓 발권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합천시네마는 무료상영이나 영화관 내 위치한 매표소에서 좌석 지정을 위한 티켓 발권이 필요합니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상영관



1관 단성사 (210석)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합천영상테마파크

1907년 6월 4일 서울 종로구 묘동에 설립된 한국 최초 상설 영화관이 모델이다. 1919년 10월 27일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이곳에서 개봉하며 한국 영화사의 뿌리가 되었다.



2관 대흥극장 (63석)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합천영상테마파크

1980년대 헤비메탈의 산실이었던 종로3가의 파고다극장이 모델이다.



3관 합천시네마 (59석)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남정길 76

농촌지역 영상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천군이 2016년 7월에 설립한 공공영화관이다. 대도시 영화관과 똑같은 최신 디지털시네마 상영시스템을 갖추어 매주 최신개봉영화를 2~4편씩 개봉하여 저렴한 관람료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개막작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개막작은 단편영화 2편입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의 모습을 한 가족의 현실에서 흥미롭게 풀어낸

오태경 감독의 <유비쿼터스19>와 친한 친구에서 사돈지간이 된 두 친구가 관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과 현재 결혼을 통한 가족의 질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 가능한 유머로 풀어낸

김인혜 감독의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이 두 편의 작품은 '성묘'와 '제사'라는,

우리 삶 속에 오래도록 자리하는 풍경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와 결혼이라는 풍경 속에

동시대 삶과 각기 다른 가족의 현실을

개성 있는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유비쿼터스19

오태경 | 2021 | 29분 57초 | 극영화



시놉시스

가부장제의 트라우마가 짙은 지민의 가족,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묘를 위해 여관으로 모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성묘 사전예약 문제로 공동묘지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가족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랜 시간 서로에게 쌓인 상처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연출의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이 팬데믹 상황에 의해 드러나고, 새로운 형태로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BHIFF NOTE

코로나 팬데믹은 애초 기대와 달리 오랫동안 일상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의 속살을 내보이게 했다. <유비쿼터스 19>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오랜만에 모인 한 가족의 명절 나기를 그리고 있다. 각자 삶의 질곡에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온 식구들의 명절은 생각처럼 화기애애하지 않다. 급기야 수면 아래 숨어있던 갈등이 성묘 예약 불발 건으로 터진다. 하지만 그 분노는 비단 지금의 것이 아니다. 오래 품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렇듯이 갈등의 발화선은 우연인 듯 필연이다. 영화는 현실적인 드라마에서 유비쿼터스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비대면 만남이지만 내밀한 일대일의 인사와 상처의 목소리가 전해진다. <유비쿼터스 19>는 한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시간을 역설적이게 단절과 소외를 이야기하는 팬데믹 시간에 풀어내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현실감 있는 디테일을 거쳐 진정성으로 발현되고 있는 연출의 힘이 인상적이다. _유순희

그렇고 그런 사이

김인혜 | 2022 | 29분 | 극영화



시놉시스

선지는 새언니가 된 친구 진희와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친다. 분명 결혼 전까진 쿨한 친구였는데, 오늘따라 진희가 엄마 영순을 대하는 태도가 불편하다.

연출의도

누군가의 며느리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는 누군가의 시어머니다.

BHIFF NOTE

친한 친구였던 진희가 오빠와 결혼했다. 시누이로서 새언니인 진희를 맞이하게 된 첫 명절, 선지는 친구였던 진희에게 묘한 불편함이 든다. 결혼하고 오랜만에 시댁에 온 며느리로, 자신의 엄마인 영순이 듣기 거슬려해도 은근슬쩍 자신이 할 말을 다하기 때문이다. 관계에 따라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는 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선지가 처한 입장도 한국사회에서 결혼하는 여자라는 입장에서 영 다르지 않다. 그녀 역시 비슷한 상황에 팔려오는 불합리한 현실이 견디기 어렵다. 사실 현실의 문제는 자명하다. 다만 그게 일단 참고 따를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넘어갈지, 태도의 문제일 뿐이다. 잠시의 의기투합이 문제의 본질을 나아지게 하진 않지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한 걸음은 된다. 감독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능숙하게 핸들링 된 드라마, 거기에 배우들의 찰진 연기들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매우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다. _유순희

경쟁작

경쟁 부문은 전국적으로 공모된 출품작 중
예심을 거쳐 선정된 작품을 상영합니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2021년 경남지역 경쟁부문 신설에 이어
올해도 경쟁부문을 국내경쟁 및 지역경쟁,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올해는 총 925편의 출품작 중에
총 38편(단편 31편 / 장편 7편)이 선정되어
경쟁작으로 상영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경쟁 부문에
총 29편(단편 24편 / 장편 5편),
경남지역 경쟁부문에는
총 9편(단편 7편, 장편 2편)이
선정되어 상영됩니다.

주차장의 밤

오재욱 | 2022 | 16분 38초 | 극영화



시놉시스

우남은 병든 남편을 돌보며 밤에는 주차장 경비로 일하며 산다. 주차장에는 몇 달째 주차비 한 번 내지 않고 지내는 용건이 있다. 사장은 용건이 탐탁지 않아 우남에게 주차비를 받아내라고 한다. 우남은 내키지 않지만, 사장이 해고할 생각이 있다는 말에 일을 받아들인다.

연출의도

타인의 사정에 관한 배려와 무관심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다.

BHIFF NOTE

돈, 돈, 돈. 지지리도 따라다니고 옥죄어 온다. 낮에는 아픈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주차장을 돌보며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우남. 봐줄 만한 사정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사정이 우남 뿐은 아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별반 다르지 않지만 우남이 조금 더 낫다. “밥이나 나눠 먹읍시다.” 하며 희망을 나눈다. 그녀가 자신의 처지는 뒤로 물리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위로였을지도 모르겠다. 동병상련이 주는 위로 말이다. 그런데 그는 도망간다. 황당한 도망을 보며 인간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임을 느낀다. 하지만, 그녀는 큰 일을 해냈다. 그가 살려고 도망치기 때문이다. 목숨 하나 살린 셈이다. 그렇게 다시 위안으로 삼는다. 이래도 그녀에게 봐줄 만한 사정이 없는가? _ 박송열

UNIQUE TIME

오유진 | 2022 | 16분 49초 | 애니메이션



시놉시스

인간의 빈 곳을 안드로이드가 대체하게 된 미래사회. 역할 대행 업무를 하는 안드로이드 J-204에게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 오류로 인해 J-204의 결함이 의심되는 와중에, J-204는 자신의 오류에 호기심을 보이는 인물과 만나게 된다.

연출의도

계속 만들면 된다.

BHIFF NOTE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 오히려 특별해진 역할대행 로봇 J-204. 자아가 있는 돌연변이 로봇이라는 설정은 SF장르에서 다루는 뻘찬 소재 같지만 이 영화는 로봇해방운동을 벌이는 식의 전개로 가게 두지 않는다. 오류마저도 철저히 상품화하여 이용하는 인간들과 특별함으로 포장되어 만들어진 욕망에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대중을 냉정하게 담아내는 욕망을 보인다. 극사실주의 영화로서 현 시대의 민낯을 통찰력있게 관통하는 셈이다. 그 뒤로 씩씩하게 따라오는 여운은 무수히 속아 온 환상을 오싹하게 깨준다. 전반적으로 보랏빛의 색감으로 표현된 세계관이 독특하게 포장되어 판매되는 팬시한 상품을 대변하는 것 같다. 전개가 매우 유려하고 간결해서 속도감 있고 흡입력이 있어 웰메이드 애니메이션의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_ 한인미

겨울방학

김민성 | 2022 | 29분 45초 | 극영화



시놉시스

인환(34세, 남)은 제사 때도 잘 가지 않던 고향 고성에 내려간다. 오랜 시간 지내왔던 고성집이 팔려, 서울로 집을 보러 가니 애들 좀 봐달라는 누나의 전화 때문이었다. 인환의 누나는 서울 사람과 재혼을 했고, 남편 쪽에서 데려온 딸 고등학생 수연(18세, 여)이 있었다. 원래 인환의 조카들인 세 명의 말괄량이 쌍둥이 동생들과 수연까지 챙기게 된 인환. 오랜만에 내려온 고향이 어색하기만 한 인환과 처음 보는 '아마도 삼촌'인 인환을 대하는 수연 사이의 불편함이 지속된다.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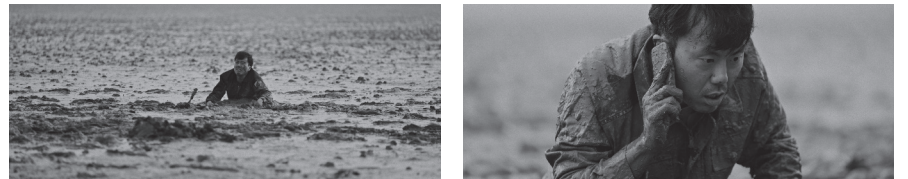
독특한 가족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갈등의 발단이나 해결 없이 조용하고 덤덤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담고자 했습니다. 극적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인물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동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애뜻하게 바라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용녀에게.

BHIFF NOTE

재혼한 누나의 조카들을 잠시 돌봐주기 위해 새 가족이 된 매형의 딸을 만나게 된 주인공. 영화는 혈연이 아닌 새 가족과의 어색한 만남과 가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일상성을 통해 따뜻하고 담담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놀라울 정도로 전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듯한 세 어린이를 비롯한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대사를 통한 설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현듯 되살리는 기억의 한 장면으로 드러내는 영화적 표현력과 마지막 결말의 장면이 주는 일상적 담담함이 오히려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_김영조

별짓

강태훈 | 2022 | 27분 | 극영화



시놉시스

정리 해고로 1년째 실업 중인 준호(40세, 남)는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 조난 사고를 겪는다. 사람 하나 없는 갯벌에 빠진 채 의식을 잃은 준호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최근 탈락한 회사에서 추가 합격을 위한 면접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다. 자신이 예비 3번인 줄도 모르고 추가 합격 면접 예정일에 여행을 떠난 준호. 망가진 물골로 화상 면접에 참석한 그는 갯벌 한복판에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현실을 마주한다.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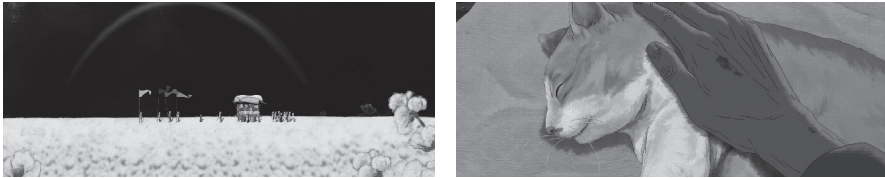
중장년층의 재취업 현실을 갯벌이라는 공간에서 은유했고,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과거의 영광과 행복을 서서히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BHIFF NOTE

정리해고로 인해 구직에 지친 남자는 도무지 그의 의지대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거기다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후배조차 자신을 무시하자, 그는 직접 조개라도 캐야겠다는 심정으로 연장 하나를 들고 갯벌로 용감하게 걸어들어간다. 웬지 자신이 처한 답답한 현실보다는 어딘가 만만해 보이는 갯벌, 그곳을 향한 발걸음은 순전히 그의 자유의지였지만, 그 '의지'마저도 움쩍달짝 못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흘러가는 모습에서 결국 삶은 길고 지난한 여정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삶 속엔 그 어떤 '별짓'도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_이형석

사라지는 것들

김창수 | 2022 | 10분30초 | 애니메이션



시놉시스

재개발 지역의 독거노인이 길고양이의 장례를 치르며 겪는 이야기.

연출의도

어떤 삶이든 의미가 있다.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위로.

BHIFF NOTE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우뚝 선 그 곳은 고양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제집 드나들듯 앞마당에 새끼들 낳아놓고 느긋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들. 다가가면 도망가기 일쑤인 녀석들을 보면 나를 오해한 것 같아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사라지는 것들>은 녀석들이 보내온 응답 같다. 재개발을 앞두고 모두가 떠난 동네에 노인과 고양이들만 남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파 소리는 노인과 고양이를 더욱 고립시킨다. 사라지고 죽은 것 같은 재개발의 이면. 쓸쓸한 기운이 맴돈다. 그런데 영화적 상상이 더해진 그들의 장례 행렬은 이상하게도 묘한 생명력이 생긴다. 재개발의 광풍에 사라지는 존재가 된 노인과 고양이의 연대를 수수한 분위기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그 어떤 전투적인 태도보다 더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_박송열

허수아비

김병건 | 2021 | 28분28초 | 극영화



시놉시스

홀로 시골 마을에서 사는 김형구(남,19)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한다. 어느 날, 한밤중에 아버지의 퇴원 전화가 온다. 아버지가 집에 오고 형구의 일상에는 아픈 아버지가 생겨버렸다. 형구는 집을 떠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요양 병원을 거부하고 형구를 붙잡는다. 형구는 아들의 역할을 위해 꿈을 포기할 것인가?

연출의도

허수아비 :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

가족의 구성원은 아버지,어머니,아들,딸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구성원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희생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극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아들은 병든 아버지를 돌보고 보호합니다. 아들은 언제까지 아버지를 간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 때문에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면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지 까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자신의 개인적 꿈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또는 가족의 역할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BHIFF NOTE

한 인간의 삶을 이루는 기본 터전이지만 때론 끈끈한 질곡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가족. 마을에 플랭카드가 붙을만큼 자랑스럽게 사관학교에 합격하여 창창한 미래를 꿈꾸던 아들은 아파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는 대신 곁에서 돌봐달라는 아버지의 요구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가족에 대한 도리와 자신의 미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아들의 감정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영화는 치솟는 감정의 대결이나 고조로 결말을 이끄는 대신 간결하고 관조적인 톤테이크를 통해 절제력 있게 표현하여 오히려 깊은 고민의 여운을 전하고 있다. _김영조

두 여인

장선희 | 2022 | 21분 | 극영화



시놉시스

소녀는 신문 배달을 하던 중 자기와 동갑 나이의 딸을 잃어버린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학을 다니고 잡지사에서 근무했다는 여인은 가난한 소녀의 엄마와 다른 듯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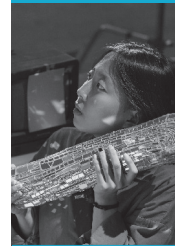
나라가 가난하고 의무 교육이 없던 시절. 그 시절에 태어나 21살에 결혼한 엄마는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못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엄마를 보며 그 세대의 여성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BHIFF NOTE

한 소녀가 묵묵히 신문을 배달한다. 소녀가 누비는 골목 곳곳에는 실종아동을 찾는 전단지들이 붙어있다. 전단지를 붙이던 여인과 신문을 배달하던 소녀는 한 구멍가게 앞에서 마주친다. 소녀는 어린 나이지만 집안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엄마가 살아 온 이야기로 여자로서 자신의 처지를 일찌감치 가늠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보다는 엄마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 여인은 소녀의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결국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감추는 것 없이 담백하게 쏟아내는 서로의 고민들에 대해 두 사람은 선불리 거리를 좁히지도 않고 쉽게 위로하지도 않는다. 다만 잘 들어주고 각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한다. 답답한 대화를 잘 눌러 담은 두 배우의 호연 덕분에 감정은 짙은 농도로 쌓여 마음을 울리고야 만다. _한인미

햇별을 볼 시간

이다영 | 2022 | 29분 26초 | 극영화



시놉시스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재경과 현수. 그들은 이웃으로부터 중고 캠코터를 구매한다. 캠코터 안에는 그들이 사는 동네가 담겨있다.

연출의도

균형을 잃고 쓰러지더라도, 넘어진 자리가 햇별이길 바란다.

BHIFF NOTE

사소해보이지만 삶을 조여오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버거울 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안전한 집을 빼앗기는 것은 일상을 대하는 태도마저 흔든다. 동거 중인 연인 재경과 현수는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꿈을 미루는 선택들을 한다. 먼저 변해버리는 상대에게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서로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안다. 그래서 둘은 사랑하고 아끼는 집과 동네에서 버티다 사라지고야 말 운명이라도 계속 사랑하기를 이어가 본다. 재경은 계속 넘어져도 외발자전거 타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런 재경을 보고 현수도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본다. 떠나게 되더라도 공간에 기억을 남기는 방법을 찾아간다. 직접적인 대사 없이도 두 인물의 성실한 일상을 보여주며 도달하는 따뜻한 공감과 응원의 시선이 햇별처럼 빛나는 영화다. _한인미

사라

정성준 | 2022 | 9분59초 | 극영화



시놉시스

상훈은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사라를 만나기 위해 어느 촌 동네로 향한다.

연출의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채팅 어플을 통한 만남이 급부상하며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성을 모르고 이를 즐기고 있다. 주체할 수 없는 욕망으로 모든 걸 잃는 남자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BHIFF NOTE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느슨해진 시대. 더욱 은밀해진 채팅 어플을 통한 만남과 그로 인한 파국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라>는 먼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성적 욕망을 대상화한 듯한 '사라'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익명성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이 영화는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악하게 발현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들여 구축한 미장센과 사운드가 몰입감을 압도적으로 고조시키는 작품으로, 10여 분의 상영시간 내내 극적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 놀라운 결말을 보여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호러무비이다. _이형석

씨티백

황선영 | 2021 | 29분 15초 | 다큐멘터리



시놉시스

열여덟 가을, 나는 친구 기현의 부고를 들었다. 기현은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청소년으로도 노동자라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순식간에 세상에서 지워졌다. '나'는 기현과 함께한 시간을 회상하던 중, 2009년 기현의 사고를 다시 마주한다. 그 시간의 주위를 맴돌며, 유령처럼 사라진 친구와 오토바이 문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길 위를 떠다니는 '기현이들'을 만난다.

연출의도

나와 친구들의 10대 시절은 나쁘고 불량했을까? 중딩, 고딩, 미성년이라는 이름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들만 잔뜩 늘어놓는다. '나'는 그 문화를 누렸던 청소년으로서, 2009년 청소년 문화의 표상인 오토바이와 오토바이를 타고 놀던 친구 기현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다.

BHIFF NOTE

'씨티100'은 우리가 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배달 오토바이 기종이다. 감독은 2009년 폭주하다가 불법 유턴 후 뺑소니로 사망한 친구 기현을 떠올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오토바이를 타는 10대 세 명을 만난다. 감독이 다녔던 학교, 살던 아파트, 친구와 노닐던 공터 등의 이미지 위에 텍스트(문자)가 더해진다. 해질녘과 새벽 풍경이 담긴 이미지 위로 목소리가 아닌 자막으로 입혀진 감독의 내레이션은 고요한 시간의 백색소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깨어있는 자는 누구인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바로 눈앞의 10대들과 10년 전 이름 없이 사라진 기현이와 씨티백 친구들의 전화 목소리가 교차되면, 세월은 흘러도 이름없는 10대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는 여전히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_정민아

블랙독

이승채 | 2022 | 28분 17초 | 극영화



시놉시스

화영은 회사에 출근해서 사장의 개나 돌보는 신입 민정이 못마땅하다. 그러다 단둘이 주말 업무를 보게 된 날, 민정이 데리고 나온 대표의 개가 사라진다.

연출의도

점점 서로를 참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왜 서로를 못 견디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견디지 못한 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BHIFF NOTE

화영은 도무지 신입사원 민정을 이해할 수 없다. 회사 대표의 개 돌보는 일을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는 대충대충 처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민정이 불편하기만 하다. 영화는 상대를 탐탁잖게 바라보는 화영의 시선에서 출발해 두 사람의 채울 수 없는 간극을 확인시킨 뒤, 판단을 유보하는 화영의 얼굴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감정의 온도가 조금 달라진 화영을 보며 그녀들에게 벌어진 사건이 상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순간 영화는 오히려 되묻는다. 네가 본 것, 네가 판단한 것, 그리고 너의 행동이 과연 옳았냐고. 타자를 향한 시선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_김은정

언니에게

김신희산 | 2022 | 20분 47초 | 극영화



시놉시스

음악과 흡연에 취해 자유롭게 살던 연우. 피멍이 든 채 찾아온 어린 동생 다운으로 인해 애써 외면하던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

연출의도

가족이라는 모호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상이하게 반응하는 여성들의 특별한 관계 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린 여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여성을 그려보고 싶었다.

BHIFF NOTE

피투성이가 된 동생 다운은 연락도 없이 혼자 사는 언니 연우의 집으로 불쑥 찾아온다. 둘은 아빠는 같고 엄마가 다른 자매지간이다.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둘의 가족관계는 일찌감치 파괴되었지만, 둘은 같은 상처를 앓은 사람들이 지닌 슬픔을 견뎌낸 감정을 교감한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 이모도 모른 척 하라고 한다. 하지만 연우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공간에서 자신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자신이 빠져나온 자리에 동생 다운이가 제2의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하고 살고 싶었다. 영화 <언니에게>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춤과 노래, 피와 잘 버무려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_정민아

벌레

김해리 | 2022 | 13분 09초 | 극영화



시놉시스

수현은 난생 처음 상을 받는다.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 저곳 돌아다니지만, 자랑 한번 하기가 쉽지 않다.

연출의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

BHIFF NOTE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게 된 소년은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이 엄청난 자랑 거리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타이밍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고, 오히려 실의에 빠진 친구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영화는 소년의 자랑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심한 주변 인물들을 통해, 관객이 오히려 소년의 내면으로 능동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닌 작품이다. 물론 안타깝게도 스크린 속의 소년은 자신을 공감해주는 관객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 하지만, 극장을 나서는 순간, 관객들은 소년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벌레>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작품이다. _이형석

가을바람 불르면

박찬호 | 2022 | 19분 36초 | 극영화



시놉시스

한-베 가정의 자녀 종수는 한국어가 아직 서툴다. 평소 시 쓰기를 좋아했던 같은 반 친구 지희는 그런 종수의 일기, 국어 숙제, 받아쓰기를 도왔다. 지희가 이번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고, 종수는 지희에게 작별 선물로 시를 주고 싶지만, 쉽지 않다.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지희가 좋아하는 크래프트지를 사러 문방구에 간 종수는 거기서 지희를 만나게 되고 우연히 그녀로부터 시를 배우게 된다.

연출의도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 소년이 시를 통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싶었다.

BHIFF NOTE

한국에서 베트남엄마와 단둥이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소년은 따라잡기 힘든 한글 맞춤법을 가르쳐 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여학생 친구에게서 시를 쓰는 법을 배워나간다. 마치 한 컷의 사진처럼 느껴지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골 마을의 풍광과 자연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 카메라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시선이 돋보인다. 감독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처한 어려움을 극적 대립이나 갈등 대신 인물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특히 영화 말미 주인공 소년이 쓴 한 편의 시는 영화의 주제 의식을 순수한 울림으로 다가오게 한다. _김영조

춤다

원유 | 2022 | 24분 21초 | 극영화



시놉시스

유튜버 미스 테리팀은 버려진 극장에 노숙자들이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취재하러 갔다가 끔찍한 것들과 마주치게 된다. 사이코 같아 보이는 신입직원과 극장에서 마주한 시체, 건물주라고 우기는 수상한 사람들, 그리고 우연치않게 마주한 경쟁 유튜버 루나팀은 테리와 찍새에게 끔찍한 밤과 좋은 영상 소재를 선물한다.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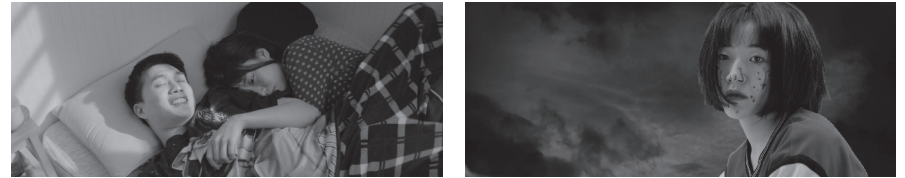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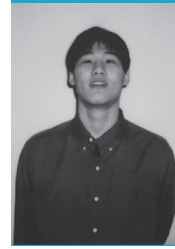
아주 추웠던 언젠가를 회상하며 무엇이 사람을 진짜 춤게 만드는가를 생각해보고 싶었다.

BHIFF NOTE

유튜버 테리와 카메라맨은 소위 대박 콘텐츠를 건지기 위해 노숙인들이 숨어 산다는 폐극장을 찾아간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보디가드 회찬까지 고용했지만 어딘지 싸하고 못미덥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극장 안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마주치며 상황은 급변하고 긴장은 고조된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콘텐츠일수록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공식은 비단 유튜브 생태계뿐 아니라 신문만 있던 시절에도 유효했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언론의 폐해다.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만이 앞서 눈앞에 벌어진 상황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끊임없이 치이고 전복된다. 보는 내내 찝찝한 불쾌감과 긴장감을 이끌고 가던 영화는 한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객의 뒤로 다가와 묻는다. 당신은 어떤 걸 보고 있다고. _한인미

텐트텐트

이준섭 | 2021 | 28분 43초 | 극영화



시놉시스

동주는 오래 사귀던 연인 성곤과의 지루한 연애를 개선하기 위해 성곤을 집에서 내쫓지만, 결국 관계 회복은 산으로 간다.

연출의도

서로를 마음으로 다가가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계산적으로 다가가 더욱 큰일을 만든다. 그리곤 이별이 감당이 되지 않아 서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결국 둘은 덮어뒀던 관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한 더 큰 일을 만든다.

BHIFF NOTE

오래된 연인 동주와 성곤은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관계 회복은 타인을 이해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관없이 그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타인의 존재를 그의 고유한 세계가 있음을 부정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동주가 이해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성곤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닦아야 할 것은 타인이 지닌 낯선 특징이 아니라 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편협함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편협함은 둔감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대체로 아픈 사람들, 혹은 결핍을 겪어 본 이들이 타인에 대해 더 예민하다. 결핍을 경험한 동주는 성곤이라는 타인을 조금씩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연결고리가 느슨해진 연인 사이가 다시 탄탄한 관계로 회복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_정민아

박문수씨의 기일

이아진 | 2022 | 13분 49초 | 극영화



시놉시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환갑이었을 올해의 기일에 각자 따로 살고있던 경찰공무원 정민, 반백수 수민이 치킨과 제사음식을 사들고 엄마가 있는 집으로 모인다. 수민이 아버지 기일마다 항상 지방문을 챙겨왔었지만 올해는 깜빡하고 들고오지 않았다. 임시로 제사에 사용한 지방문은 바람이 불어 태우지 못하고, 제사 후 가족들은 음복을 하다 시작된 이야기로 정민과 수민이 싸우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다.

연출의도

오래전에 먼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들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먼저 떠난 사람의 시선에서 남겨진 사람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BHIFF NOTE

아버지를 애도하는 기일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일상적이면서 특별한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부재하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다. 그 부재는 집안 곳곳에서 우연 혹은 낯설게 발생하는 어떤 '흔적'들로 자연스럽게 채워진다. 남은 가족들이 마음속으로 부재하는 아버지를 호명하고, 그 호명에 죽은 자가 반응하는 것처럼. 이 영화는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가족의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카메라로 가족이라는 익숙하면서도 다소 낯선 존재들을 한명 한명 따뜻하게 지켜본다. 분명 함께 있던 자리에서 사라진 가족 한 사람의 자리는 남은 가족으로도 메울 수 있는 작은 '퍼즐'과 같은 흔적일 수 있음을 담백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_이형석

타란투너

김효미 | 2022 | 20분 13초 | 애니메이션



시놉시스

피아노 천재인 소년은 쌍둥이 형을 사고로 잃은 충격으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인다. 피아니스트 은퇴를 앞둔 남자는 자신의 도플갱어를 마주한다. 소설가인 여자는 도플갱어의 연주에 흥미를 느낀다.

연출의도

환상과 기억이 뒤섞일 때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BHIFF NOTE

<타란투너>는 강압적인 부모와 아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개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이 되지 않으면서 사뭇 긴장감을 일으킨다. 그리고 곧, 이 긴장감은 영화의 힘이 된다. 거친 입자와 흑백의 화면은 서늘한 분위기를 더하고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인물들의 말과 행위를 마치 거미줄을 치듯 연결 짓고 매혹적인 세계로 이끌어간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도 아닌, 그저 <타란투너>가 새롭게 창조한 영화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리드미컬한 능숙함도 돋보인다. 피아노 선율은 절묘한 순간에 나와 고조되었던 서늘한 분위기를 급격히 환한 분위기로 바꾸기도 하고 거미의 변이로 인물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과감한 표현으로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영화이다. _박송열

예술이라니 동무여

송원찬 | 2021 | 29분 59초 | 극영화



시놉시스

주인공 전준태는 문학창작과 대학생으로 위장 간첩 활동을 한다. 그의 역할은 인스타그램에서 시인 페이지를 운영하며 북에서 내려온 지령을 그들만 아는 암호를 사용, 시로 작성해 임무를 전파하는 암호전사이다. 그런 전준태가 우연히 등단을 하게 되고 예술의 세계에 눈을 뜬다.

연출의도

예술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따라 오는 물음. “그거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런 건 취미로 해도 되잖아.” 타인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하는 성찰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업으로 삼는 길을 걷는 바는 결국 ‘좋아해서’인 것이다. 안주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탈주를 갈망하며, 좋아하기 때문에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응원하고 싶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싶다.

BHIFF NOTE

‘시는 난해하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이 영화의 코미디 장르적 특성은 시의 독특한 창작 기법인 은유법, 대유법, 환유법 등의 비유법을 통해 만들어진다. 시가 어떻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비유법으로 표현된 대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속 두 주인공은 번번이 하나의 표현을 놓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오인을 통해 유머러스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리우진 캐릭터는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감상적인 상념에 빠지지 말아야 할 간첩이라는 신분과 매우 감상적인 일을 하는 시인이라는 임무를 한 인물에게 부여함으로써 캐릭터가 가진 내외적 갈등만으로도 극적 긴장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시인은 간첩이다’라는 메타포를 완성시킴으로써 영화적 완성도를 높였다. _정민아

희라의 순간

이진영 | 2022 | 24분 20초 | 극영화



시놉시스

외톨이 열세 살 희라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잘생기고 인기 많은 같은 반 반장 남우를 보기 위해서이다.

연출의도

가지고 싶어 해도 괜찮아.

BHIFF NOTE

6학년 희라는 외톨이다. 엄마는 바쁘고, 가난한 살림살이로 학원에 가지 못해서 친구가 없으며,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희라를 상대해줄 이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생기고 인기 많은 남우가 희라에게 친절을 베풀자, 희라는 그를 연모하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남우를 따라가는 희라의 시점에 맞춰지고, 희라만 알게 되는 남우의 비밀로 인해 이 첫사랑은 위기를 맞는다. 6학년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가정과 로맨스는 한국사회의 가난의 현실을 보게 한다. 첫사랑의 설렘이라는 로맨스는 계급과 편견의 문제로 옮겨간다. 희라가 선택한 사랑 방식은 그 남자아이가 되어보는 것이며, 어린아이답지만 성숙한 순간의 선택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모자라도 괜찮아. 가족이든 사랑이든 친구든. 희라의 순간은 성장의 순간임을 깨닫게 한다. _정민아

배우 송경을 찾아서

김록경 | 2021 | 14분 | 극영화



시놉시스

과거 불꽃 연기를 펼쳤던 배우 송경은 현재 감독 송경으로 꾸준히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인터뷰 중에 기자는 송경에게 배우로서 활동할 때가 그림자며 배우 송경의 팬이라 말한다. 그날 밤, 송경은 자신의 출연 작품들을 돌려보다 잠이 드는데... 다음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캐스팅 제안의 전화다.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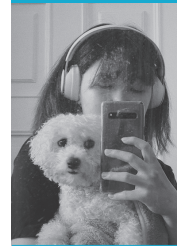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도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BHIFF NOTE

감독으로 성공적인 삶에 안착한 배우 송경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로 인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마치 영화 속 수많은 캐릭터가 수행해야 하는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들과 닮아있다.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서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궤적과 분리되기 힘든 것처럼, 매번 픽션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하는 '배우'라는 운명은 송경의 모습으로 잘 표현된다. 그리고 배우 송경의 자기 고백적인 환영들이 하나둘 쌓여가는 모습은 누구나 토로하고 싶은, 자신만의 내적 독백같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환원된다. 그렇게 물과 기름같은 삶이 공존하는 송경에게 있던, 배우와 감독 사이의 어정쩡함은 분명 사라질 것이다. 배우 송경은 이미 살아왔던 수많은 캐릭터들에게 박수를 쳐줄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_이형석

로봇이 아닙니다.

강예슬 | 2022 | 20분 18초 | 실험영화



시놉시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한 3D 시뮬레이션 전문가에게 그 교통사고를 재현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연출의도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할 때 저마다의 기준을 갖는다. 각자 그 기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다. 모호한 기준들이 모여 방대한 데이터가 되고, AI에게 학습된다. AI를 통해 모호한 기준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은 어떤 하나의 기준을 향해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일 뿐이다.

BHIFF NOTE

'로봇이 아닙니다'는 웹 로그인 시 종종 볼 수 있는 테스트로, 로그인하는 것이 사람인지 봇인지 분간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정식명칭은 reCAPTCHA)이다. 웹 세계에서 스팸메일 활동이나 자동화된 해킹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감독은 이 테스트를 모티브로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는 모호한 기준이나 근거들에 의심을 품는다. 그리고 되묻는다. AI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방대하게 리서치된 이미지의 변형과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영화를 언뜻 너무 복잡하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의외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고정관념, 편견까지도 녹아있는 통념의 데이터들이 전방위로 활용되고 있는 현대에, 그것이 인간세상에 미치는 사각지대 또는 결과값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_유순희

현수막

윤혜성 | 2022 | 24분 41초 | 극영화



시놉시스

사라진 언니가 15년 만에 돌아온다. 동생 지호는 언니, 엄마와 함께 서울 곳곳에 걸려있는 언니의 실종 현수막을 수거하러 다닌다.

연출의도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을까?

BHIFF NOTE

현수막을 빨아서 다시 내거는 마음은 어떤 걸까. 지호는 행방불명된 언니를 찾는 현수막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동네 언덕에 내건다. 15년 만에 언니 신애가 집으로 돌아오고, 영화는 성근 감정으로 함께 현수막을 떼러 다니는 세 모녀의 하루를 그린다. 현수막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빨거나 떼어내는 행위로 신선하게 접근하며 인물의 감정을 차분하게 견인하는 연출에서 감독의 역량이 확인된다. 상실과 회복, 원망과 후회, 그리움과 두려움의 감정들이 찰나의 순간마다 미세하게 교차된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공기의 질감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현수막을 마주 잡은 자매는 2m 남짓한 그 길이만큼의 거리에서 한 발짝 발을 떼다. _김은정

어나더타운

윤동기 | 2022 | 28분 29초 | 극영화



시놉시스

가족들과 별거 중인 공인중개업자 장태수는 경찰들로부터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달 받는다. 유난히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밤이다.

연출의도

‘원미동의 아이들은 집안에서 틀어박혀 지내는 법은 애당초 배운 적이 없다. 아침 눈 뜨면서부터 집 앞으로 뛰쳐나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놀았다. 그런 꼬마들이 불장난의 짜릿한 재미를 앞에 두고 온전할 리 없다.’ -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BHIFF NOTE

며칠 집을 나갔다가 으레 돌아오는 반항적 아이들의 세계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실종인지, 아버지 장태수도 확신이 없다. 웬지 모를 음습한 분위기,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는 비, 도를 넘는 아이들의 장난. 모두 그의 어깨 위에 내린다.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 없다. 그날따라 유난히 그를 감싼다. 별거 중인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은커녕 상처만 깊어진다. 이쯤 되면 그도 터질 것도 같은데 그럴 기운조차 없어 보인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지치게 했는지? 그의 사연을 어렵פות이 짐작만 할 뿐이다. 고개 숙인 그에게 빛의 한 줄기가 가리키는 것은 실은 아들의 실종이 아니라 장태수 자신의 실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연민도 일으킨다. 부동산 중개업자 장태수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_박승열

지붕 위의 두 남자

모현신 | 2021 | 12분 | 극영화



시놉시스

영화를 더 보고 싶은 동네 주민과 영화를 더 찍고 싶은 영화배우가 옥상에서 만난다.

연출의도

영화적 체험은 영화 그 자체.

BHIFF NOTE

한낮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 골목에서 독립영화 한 장면이 촬영된다. 어쩌면 좀비영화일 것이다. 영화 찍는 것이 신기한 동네주민은 막걸리와 오징어 땅콩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눈앞에서 실시간 펼쳐지는 영화를 감상한다. 이 남자는 한 컷만 출연하고 역할이 끝나버린 좀비 역의 단역배우에게 호의를 베푼다. 촬영팀은 떠나고, 남은 배우는 지붕 위로 올라가 남자만을 위한 대사 없는 좀비 역을 연기한다. 영화를 더 보고 싶은 남자와, 연기를 더 하고 싶은 공들인 특수분장을 한 좀비 역 배우의 소망은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영화가 신기한 이와 연기가 고픈 이가 만나서 펼쳐는 한판 소동극은 규모가 작은 단편이어도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로 인해 활기를 획득했다. _정민아

터

조현서 | 2021 | 27분 54초 | 극영화



시놉시스

별초와 이장 일을 하며 먹고사는 묘순은 금자의 아들 윤우의 묘를 이장하던 도중, 윤우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한다.

연출의도

당연했던 무덤이라는 존재가 이젠 어떤 종류의 계급처럼 느껴졌고,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존엄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이야기를 출발했다.

BHIFF NOTE

주인공 묘순에겐 마음에 묻어둔 아픔이 있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 생이별 앞에 놓인 그녀는 삶을 산다기보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날, 새로운 이장 일을 돕게 된 묘순은 의뢰한 사람들이 아들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일이 진행될수록 명확하게 드러나는, 묘순의 상황과 사뭇 대조적인 또 다른 슬픔의 현실은 그녀를 더욱 괴롭게 한다. 범인을 잡을 능력이 아들을 제대로 묻어 줄 능력도 없는 엄마가 토해낼 수 있는 울음은 거의 비명에 가깝다. 그러한 복잡다단한 내면의 감정을 절절하면서도 때론 뾰족하게 풀어내는 변중희 배우의 연기는 이 영화의 화룡점정이다.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에서 시작해 죽음에도 미치지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가 지 다다른 영화는 감독의 굳터더기없는 절제된 연출로 인해 묵직한 영화의 질문을 더욱 깊게 만든다. _유순희

굉

유소영 | 2022 | 27분 36초 | 다큐멘터리



시놉시스

보랏빛 새벽, 오가는 이 없는 한적한 도로 한쪽에 미나리 좌판이 있다. 그 안에서 흰머리를 높이 묶고 노란 고무장화를 양발에 끼우고 커다란 초록색 앞치마를 둘러매는 한 여성. 빨간 고무대야를 양쪽 허리춤에 끼어들고 바로 뒤에 있는 미나리좌판으로 들어간다. 언양읍성에 마지막 하나 남은 미나리 노점상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

연출의도

푸르른 미나리좌판과 좌판이 언양읍성과 잘 어울린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읍성의 미나리 좌판 숫자가 늘지는 않고 하나둘 줄어만 가더니 급기야 수년 전부터 하나만 남게 된 것이 아쉬워 없어지기 전에 다큐멘터리로 남기려 했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나리좌판과 좌판을 오가며 미나리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한 여성의 노동의 숭고함을 담은 관찰기이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이정애를 보며, 억척같이 삶을 영위하는 원동력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다.

BHIFF NOTE

어떤 환경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진 미나리. 높은 장화를 신고 걸음을 떼기도 힘든 미나리 평(논)에서 그녀는 역센 손길로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도 빠짐없이 미나리를 캔다. 관객에게 주제 의식을 드러내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절제력 있는 시선으로 거리두기의 소중함을 보여준 카메라는 주인공 여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몇몇 인서트 장면들을 곳곳에 배치하며 섬세하지만 힘있는 관찰자로 주인공의 결을 지킨다. 특히 딱딱하고 고된 일상 속에서도 미나리처럼 강인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주인공의 결기있는 마지막 다짐은 영화의 결말에 활력을 더하기도 한다. _김영조

언젠간 우리가 다시 극장에 가야하는 이유

김건 | 2021 | 21분 48초 | 극영화



시놉시스

두둥, 행성이 3일 뒤 지구를 덮쳐 멸망하게 되는 큰 재앙이 들이닥친다. 칸초는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 글을 하나 남긴다. '죽기 전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실 분.' 아무도 댓글을 남기지 않던 그 글에 유일하게 댓글이 하나 달린다. '저요.'

연출의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현실. 극장에 영화 한 편 보러가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극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에 이번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재밌고 신선한 즐거움을 주려고 한다. "세상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겠다."

BHIFF NOTE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빗대, 코로나 행성과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영화의 극적인 도입부는 사실 낯익은 설정임에도 어느 순간 몰입과 서스펜스를 느끼게 된다. 영화 속 시한 폭탄은 늘 실제 시간보다 한참있다 폭발의 순간을 맞이한다. 이로 인해 관객의 긴장감이 상승한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는 '알고보면' 극장 때문이라고 영화는 이야기한다. 영화적 쾌감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극장'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꽤나 설득력이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우리가 지금 다시 극장에 가야 하는, 이유들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 수많은 영화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넘치는 현사를 자연스럽게 녹인 장면들도 인상적이다. 영화의 '갑'은 결국 극장이었다. _이형석

머드피쉬

이다현 | 2022 | 24분 13초 | 극영화



시놉시스

미국에서 7년을 보내고 부모와 함께 귀국한 솔. 엄마와 함께 고모네 집에 얹혀살고 있다. 한밤중에 집을 돌아다니는 솔, 어항 속 금붕어를 발견하고는 어린 마음에 손을 집어 넣어본다.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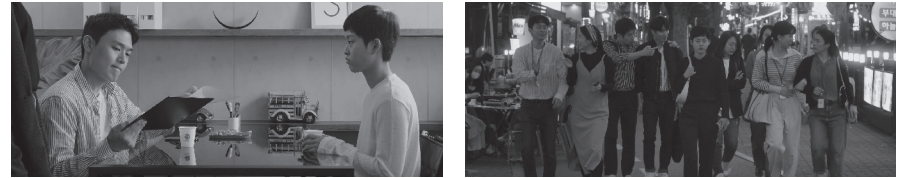
〈머드피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한 아이에 대한 성장영화이다. 작품 속 미꾸라지는 갈 곳을 잃은 솔과 그의 가족이다. 동시에 솔과 아빠가 간직한 순수함이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회의 크고 작은 선과 경계들을 처음 마주하게 된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잃어버린 순수함의 조각들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BHIFF NOTE

엄마와 단둘이 고모 집에 얹혀살게 된 아이 솔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다. 아이는 한국어도 서툴고, 사촌 누나와의 관계도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사촌 미꾸라지가 아이의 마음에 균열을 일으킨다. 영화는 낯선 환경에 직면한 아이의 시선을 조용히 따른다. 정서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아이는 계속 무언가를 만지고 묻고 바라본다.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매미 울음소리는 지나가는 여름 한 철의 정서를 상기시킨다. 아무 데서나 잘 산다는 미꾸라지와 보이지 않지만 울고 있는 매미는 아직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다. 햇볕 쏟아지는 여름날, 자꾸만 나무를 올려다보는 아이를 보며 당신은 차라리 아이가 매미를 찾지 못하길 바라게 될지 모른다. _김은정

거북이가 죽었다

김효은 | 2021 | 29분 07초 | 극영화



시놉시스

인정은 회사에서 잘리고 키우던 거북이가 죽자 모든 것에 대해 남 탓만 한다. 죽은 거북이를 들고 친구가 소개해준 면접을 가게 된 인정은 면접도 망치고 절친과도 갈등을 일으킨다. 혼자 남게 된 인정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알 수 없는 냄새의 원인이 자신의 손에 든 거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연출의도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다.

BHIFF NOTE

인정은 출신 대학 이야기만 나오면 날이 선다. 주변의 호평에도 자신이 고졸이기 때문에 오롯이 평가받지 못한다고 여긴다. 친구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날, 키우던 거북이가 죽었다. 시종일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정의 눈동자, 그녀를 맴도는 불쾌한 냄새와 신경 거스르는 소리는 스크린 너머 관객의 마음마저 흔들어놓는다. 영화는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심리적으로 고립된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선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커피로 얼룩진 옷과 이력서처럼 말이다. 배우 이연은 극의 몰입감을 견인하는 연기로 관객에게 눈도장을 찍는다. _김은정

미스터장

장병기 | 2021 | 39분 | 극영화



시놉시스

장사장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장을 돕는다.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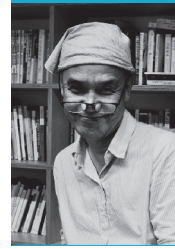
주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BHIFF NOTE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마을에 방송 뉴스 앵커를 지낸 정사장이라는 남자가 들어왔다. 영화는 이 정사장과 롤리코스터같은 관계를 갖게 되는 젊은 마을 이장을 주인공 시선으로 두 사람 사이 일종의 권력관계, 아니 이장이 겪게되는 권력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사장은 돈도 이름값도 있는 외부 인사로 이장에게 마을 발전사업에 대해 제안과 조언을 하기 시작한다. 왜 이장이었을까? 그도 (마을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고 젊은 이장은 또 다른 리더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주민들의 생계터전의 보호막이 된 다던 밧은 치워졌다. 영화는 이 밧이 가져온 진실논쟁에 시소게임같은 긴장감을 구축하면서 계급적 세계관의 차이까지를 확장시켜 보여준다. 결코 어느 한쪽을 단순선악의 구도로 그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예민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는 엔딩의 장면을 통해 그 현실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_유순희

시인들의 창

김전한 | 2021 | 70분 | 다큐멘터리



시놉시스

실용성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합리적인 일상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만드느라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영혼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바로 시인들의 일상입니다. 어느 날 시인의 창밖에 서 봅니다. 창 안이 궁금합니다. 푹푹 ~ 조심스레 노크를 합니다. "뭘 하고 계신가요?" 시인의 대답이 나지막이 번져 나옵니다. "알을 품고 있지요"

연출의도

시인들의 몸짓을 통해서 관객은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BHIFF NOTE

언어를 탐험하는 시인들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다 / - 서성희 영화평론가

<시인들의 창>의 카메라는 시인과 작가들이 한 계절 머물다 가는 문학의 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숨죽이고 자리한다.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된 시인과 작가의 공간은 매우 낮설고 조용한 곳이기 때문이다. 삶이 달라지면 언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언어도 달라진다. 시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고 문득 깨닫게 된다. 창 안쪽으로 언어를 캐고 있는 그 공간은, 그런 곳이 있는 줄 들어본 적 없어도 잘만 살아가는 이곳과는 다른 세상이다.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곳 얘기는 다른 세상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세계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우리 세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머지 반쪽이다.

시인은 언어를 탐험하러 다니는(an exploration into the language) 사람들이다. 안개 낀 새벽 들녘을 어슬렁거리고 온몸으로 오롯이 자연의 소리도 바람도 비처럼 맞고 서로의 몸을 쓰다듬기도 한다. 불어난 물과 떨어지는 낙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낀다. 시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몸으로 안고 등을 쓰다듬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이다.

시인은 언어가 걸릴 뒷(language entrapment)을 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화는 서두르지 않는다. 시인이 뒷에 걸린 언어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그저 기다릴 뿐이다. 어떤 문장은 그 문장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짐작하게 한다. 단어를 정교하게 골라 쓴 문장의 정확함은 천재성이나 번득이는 영감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단어들을 대입해 보고, 수정해 온 결과인 경우가 더 많다. 정확한 문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거기에 들인 시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시인들의 창>은 선불리 자신이 이해한 바를, 혹은 이해했다고 스스로 생각한 바를 떠드는 것보다 시인들의 세계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임을 알고 있다.

시인은 스스로 질문(Q)을 던지는 사람이다. 시인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즉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 거다.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답을 구하지 못한 질문은 방향처럼 보이겠지만, 그 자체가 방향이다. 그 방향을 찾기 위해 자연에 기댄다. 꽃을 놓고 바람을 맞고 어두워지는 시간에 온몸을 던진다. 이 신중하고 집요하면서도 인내심이 가득한 글을 추구하는 자세는 언어의 도단(deliberation)으로 이어진다.

편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확한 언어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경험을 전하는 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눌하게, 조심스럽게 풀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익히지 못한 단어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 모여 이야기가 될 때, 그 이야기가 내 안에 혼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내 안의 단어들의 지평이 넓어질 때, 나는 성장할 것이다. 시인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시인은 자신의 길고 힘들었던 이 언어 창조의 여정(creation is a long journey)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우리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는 의미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식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인을 통해 확인하는 자기만족이나 다름없다. 얼마나 많은 다큐멘터리가 이런 자기만족에 그치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타인의 경험을 온전히 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삶에 대입해 보는 정성을 보일 수는 있다. 그 정성과 노력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시인들의 창>은 우리를 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조그만 산책로를 열어준 아름다운 작품이다.



다섯 번째 흥추

박세영 | 2022 | 62분 | 극영화



시놉시스

버려진 매트리스 위에 곰팡이가, 곰팡이에서부터 한 생명체가 탄생한다. 생명체는 인간의 척추뼈를 빼앗으며 거주지를 옮겨 다닌다. 침대로부터, 곰팡이로부터,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출의도

잘 정리되지 않은 연인 관계 사이에 남겨진 찌꺼기, 한(恨), 약속과 저주들은 어디로 갈까? 그 추상적인 덩어리들이 연인이 서식했던 침대와 뒤섞여 함께 하는 여정을 그리며 찌꺼기들의 최후를 그리는 동시에 침대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연인과 시간을 추적한다. 거기서 이별하는 방법을, 잊혀진 사물과 곰팡이들은 어디로 흘러가서 모이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BHIFF NOTE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영화적 유희 / -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박세영 감독의 장편영화 <다섯 번째 흥추>는 제목만큼이나 기괴한 영화다. 곰팡이가 주인공이다. 이 기괴한 상상력의 시작은 박세영 감독의 대학 시절 자취 경험이었다. 어느 날 습한 자취방 벽 한쪽 구석에서 발견된 곰팡이, 없애도 자꾸 생기는 곰팡이를 포스터로 덮어두었고 이사하기 위해 포스터를 떼어냈을 때 그는 옆으로 퍼지면서 털까지 생겨나 입체적으로 자란 곰팡이를 발견했다. 환기가 안 되고 습한 집에서 발견되는 곰팡이는 영화 <기생충>에서 봤던 반지하에 살면서 몸에 배어버린 냄새와 같은 것이다. 주로 청년들이 사는 도시 원룸의 곰팡이는 경제적 빈곤의 증거다. 감독이 곰팡이를 보고 징그러움과 역겨움보다 슬픔과 애잔함의 정서를 먼저 느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다섯 번째 흥추>는 박세영 감독의 이런 개인적 경험과 이때 느낀 감정을 발전시켜 확장한 영화다.

영화는 바로 이 곰팡이가 사람들의 흥추를 빼먹으며 인간을 닮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한 연인이 생활하는 집의 매트리스에 피어난 곰팡이가 생명을 얻게 된 건 남자가 여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죽어!”, 떠난 애인에 대한 여자친구의 증오와 분노가 뒤섞인 외침과 함께 태

어떤 곱팡이는 매트릭스를 숙주 삼아 서울 곳곳을 이곳저곳 부유한다. 길가에 버려졌다가 모텔의 매트릭스가 되기도 하고 차를 탔다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 병원의 매트릭스가 되기도 한다. 곱팡이 괴물은 매트릭스를 따라 이동하면서 남자친구를 시작으로 길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 이제 막 이별하려는 연인, 죽음을 앞둔 중환자의 흥추를 차례로 빼먹으면서 성장하고,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 과정에서 증오로 가득했던 곱팡이 괴물은 겉모습만 인간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함께 하나씩 습득해 나간다.

박세영 감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곱팡이 괴물의 기괴하고 이상한 여정을 눈을 사로잡는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와 탁월한 상상력으로 밀도 있게 채워간다. 흐르는 시간은 감각적인 타임랩스 이미지를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곱팡이 시점 쫓은 곱팡이에 생명을 부여하고 관객이 감정을 이입할 여지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환상적인 미장센, 정교하게 디자인된 사운드는 곱팡이 괴물의 변화를 기괴하면서도 아름답고, 징그러우면서도 환상적으로 담아낸다. 곱팡이 괴물의 생명력이 강해질수록 영화는 리드미컬하게 속도를 더해가고, 이미지와 사운드는 더욱 풍성해진다. 이와 함께 이 영화만의 독특한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긴장감도 함께 고조된다. 그러다가 영화의 후반부, 용달 트럭 운전사의 흥추를 빼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려고 하는 곱팡이 괴물과 그걸 막으려는 운전사의 숨 막힐 듯한 사투를 담아낸 10여 분간의 차량 시퀀스에서 그 모든 에너지가 한번에 폭발한다. 박세영 감독은 촬영, 편집, 사운드, 미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영화의 구성 요소들을 탁월하게 조합하여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시퀀스이자 이 서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장면을 감각적이면서도 매혹적으로 담아낸다.

하지만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 최소한의 프로덕션 조건에서 성취해낸 놀라운 시청각적 이미지와 기술적 완성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영화의 진짜 마법은 독특한 형식과 뛰어난 테크닉을 통해 아무 감정이 없는 곱팡이에 감정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기괴하면서도 다층적인 서사 속에서 애잔함과 슬픔의 감정을 창조함으로써, 관객들이 이 모든 걸 매혹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 특별한 재능은 최근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 안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루어낸 김보라 감독의 <별새>,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 김세인 감독의 <같은 속옷을 입은 여자>와 같은 호평을 받았던 독립영화들과는 달리 박세영 감독의 <다섯 번째 흥추>는 작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재능의 등장을 알리는 징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메시지의 전달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영화를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연결 시키려고 하는 한국 독립영화 특유의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낸 특별한 영화들이다. 난 이 정도로 서사와 메시지보다 영화적 유희에 집중하는 영화를 별로 본 적이 없다. 박세영 감독의 다음 영화가 기대되는 건 이 때문이다.



그 겨울, 나는

오성호 | 2021 | 100분 | 극영화



시놉시스

경찰 순경시험을 준비하던 김경학은 어머니의 빚 2천만원을 떠안게 된다. 결국 그는 돈을 갚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하지만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여자친구인 박혜진과의 관계도 점점 틀어지기 시작한다.

연출의도

위로받고 응원받고 싶었습니다.

BHIFF NOTE

주인공의 얼굴이 곧 영화의 풍경이 되는, 깊은 슬픔의 영화 / - 이용철 영화평론가

경학(권다함 분)과 혜진(권소현 분)의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는 새로운 류의 것은 아니다. 동거 중인 두 사람은 행복했다. 둘 다 아직 직업을 구하는 중이고, 형편이 썩 좋은 건 아니어도 함께 사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던 커플이었다. 그들에게 닥친 고통의 시간 또한 다른 젊은이들의 그것과 비교해 유별난 편은 아니다. 혜진은 목표하던 관광공사에선 낙방했으나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그런데 경학은 엄마가 진 채무를 갑자기 떠안으면서 급히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혜진의 직장 스트레스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힘들어진 경학의 급락한 처지가 부딪히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간다.

청년들의 가난한 현실을 다룬 작품이 독립영화의 각별한 소재로 사용된 지 꽤 됐다. 그래서 나는 서두에서 경학과 혜진의 슬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척했다. 그런데 말이다, 이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독립영화에도 어떤 트렌드가 있어서 흐름을 타기 마련인데, 가난한 청년이라는 주제는 도무지 사라질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그러지기는커녕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중이다. <그 겨울, 나는>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홈리스>의 상황까지 보게 되면, 나는 정말로 아찔해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

를 두는 것'이 어떤 젊은이들에겐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뭐 그리 하늘이 허락해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얼굴은 곧 영화의 풍경에 해당한다. <그 겨울, 나는>에서 내가 내내 보아야 하는 풍경은 경학의 얼굴이다. 영화가 시작하면 그는 학원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중이다. 공무원을 꿈꾸는 29살 청년의 얼굴, 그 얼굴로 집에 와서는 혜진과 웃으면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 풍경이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나만, 짐작하듯이 그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진다. 현실의 무게에 힘이 겨워 혜진에게 급기야 욕지거리를 내뱉을 때는, 내 마음마저 무너져 내린다. <눈물>의 주인공 광민규를 울게 만들었던 오성호는 독한 감독이다. 그는 이번에도 권다함을 기어코 울게 만든다. 그것도 광민규처럼 힐끔 눈물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영영 울게 한다. 경학은 스스로 마음을 떠나게 만든 혜진 앞에서 “존나 열심히 산다고,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살아”라고 한탄한다. 네가 열심히 산 것을 내가 왜 모르겠나.

돈을 빌렸던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버지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 경학은 고모에게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자신도 형편이 좋지 않다는 고모는 조카의 사주를 봐준다. 그러면서 불이 필요하다고, 붉은색 옷을 입으라고 주문한다. 검고 푸른색 옷을 입던 경학은 아르바이트에 뛰어들면서 붉은색 패딩을 걸치고 다닌다. 그래봤자 바라던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같이 일하다 티격태격하던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혜진의 어머니로부터 노골적인 불편함을 사고, 종래에는 사랑하는 혜진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다. 운명에 도움을 줄 거라던 붉은색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방의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그는 다시 검은색 패딩으로 갈아입고 있다. 그는 운명 따위는 믿지 않게 된 걸까.

경학과 그의 교제를 반대하는 혜진의 어머니는 자신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한다. 수십 년 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결과로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디 그러냐는 뜻이다. 현실을 잘 아는 어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회가 아주 안 좋은 곳임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배경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노력해도 미래가 바뀌지 않는 사회, 그러므로 혜진의 어머니는 그럴듯한 남자와 만나라고 말한다. 원래 멜로드라마는 갈등을 전제로 하는 장르다. 계급 간의 갈등도 그 중 하나다.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의 <멋진 일요일>이나 이만희의 <휴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난한 사람끼리의 갈등은 멜로드라마의 소재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 사회의 지형이 그런 커플의 갈등과 멜로드라마를 자꾸 만들어지게 한다. 당신에게 답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내게 <그 겨울, 나는>은 깊은 슬픔의 작품이다.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김명윤 | 2021 | 87분 | 다큐멘터리



시놉시스

미나미알프스 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나가노현 오시카무라 마을. 깊은 산 속 폭대기 위에는 30년 전 영국에서 온 사이먼 피코트(70) 씨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오시카무라는 이주민들과 서로를 돕는 조용한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곳이다. 그러나 5년 전 미나미알프스를 뚫는 터널 공사 '리니어 신칸센' 이후 오시카무라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연출의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SDG지속 발전 가능한 목표라는 가치관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가치관을 지키고 온 어느 산골 마을이 있다. 이곳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시카무라. 그곳에 부는 바람은 지금껏 느낄 수 없었던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자유로운 그들의 삶처럼 풍요로웠다. 산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오시카무라에는 어느샌가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꿈의 신칸센 리니아공사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오시카무라가 상처를 입게 된 건 자연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였다. 이 작품은 조금씩 변해가는 오시카무라의 풍경과 함께 오시카무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작품이다.

BHIFF NOTE

자연과 공동체를 위한 연대 / - 서성희 영화평론가

영국인 사이먼 피코트는 산신에게 기도하고 나무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자르고 장작을 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산속의 차가운 한기는 뜨끈한 목욕물로 녹여낸다. 목욕 후 시창기는 앞마당에서 직접 길러낸 배추를 뽑아 샐러드 해 먹고, 피아노치고 앨범도 보면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며 산다. 현재 아흔인 사이먼도 20대 때는 도쿄에서 일했고, 도시에 사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오키타마 마츠모토를 거쳐 더 산골인 나가노 현 오시카무라로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다. 이처럼 오시카무라에는 도시 삶에 한계를 느껴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도시의 삶에 한계를 느끼고 산속 마을로 들어와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사는 타인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 말초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한국 사회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걸 보면 비슷한 욕구가 느껴지기도 한다. 자연에 사는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현대인에게 프로그램으로나마 힐링과 참된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어떤 시기, 어떤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머물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리니아 신칸센과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려는 마을의 연대와 행동으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아간다.

자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도시인이 상상해보지 않았고, 관심을 두고 지켜보지 않았던 삶이 그 속에 있다. 이때 쉽게 함부로 쓰이지만 조심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 '이해'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리에 앉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 꼼짝도 안하고 앉아서서는 누군가를 이해했다고 말한다. 그런 건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맥락 안에 타인의 이야기를 맞추어 넣는 것일 뿐이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지닌 understand의 어원은 '어떤 것의' 한가운데에 서다,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해의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대상의 위치에 서 보는 것이 이해다. 그것은 위치의 이동을 전제하는 행위이고 이해는 머리나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은 이해의 육체성을 몸소 실천하는 미덕을 지닌 다큐멘터리다. 실제로 감독이 기도하기 위해 카메라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오기도 한다.

다른 세계와의 접촉이 없고 이해하려들지 않는 개인은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다. 비접함, 망상, 근본주의 같은 것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안락함을 지키는 과정 혹은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안락함을 얻으려는 과정으로 드러나는 모든 추악함은 약함의 다른 모습이다. 타인의 삶, 자신의 세계와는 다른 곳에서 진행되어 온 삶을 다른 언어를 통해 전해 듣고, 그것을 자신의 세계, 자신의 언어에 비추어 보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 가는 과정은 자신의 정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타인의 언어들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회교도의 눈초리와 양의 눈초리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회교도가 평생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양의 눈을 닮은 것이 아니다. 동일한 풍토화 환경에서 생육하는 동물들에게서 동일한 안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풍토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과 같은 '안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안광을 지니지 못한 외부인의 언어는 소통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은 오시카무라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안광을 지니기 위해 수많은 시도와 노력들로 빚어진 빛나는 작품이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김세인 | 2021 | 144분 | 극영화



시놉시스

한 집에 살고 있는 이정과 수경은 그다지 살갑지 않은 모녀이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이정과 수경은 여느 때와 같이 다툼을 벌이게 되고 주차장에서 수경이 탄 차가 이정을 덮치게 된다. 이정은 수경의 급발진 주장을 믿지 않고 수경이 일부러 자신을 친 거라고 확신한다. 이정은 이제 지난 삶 모두를 수경에게 사과받고 싶다.

연출의도

우리는 이제 각자의 속옷을 가져야 한다.

BHFF NOTE

캐릭터의 강렬함과 서사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놀라운 데뷔작 / - 정민아 영화평론가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김세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지난해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어 뉴커런츠상과 관객상 등 5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최고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이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베를린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되었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깜짝 행보 이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으며 흥행에도 성공한 <별새>(2018)의 여정을 잇는 올해 독립영화 최대 화제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제목이 주는 강렬함이 있다. 두 여자가 같은 속옷을 입는다면, 아주 친밀한 가족이나 애인 사이일 것이다. 제목에 아이러니가 녹아있다면, 둘은 친밀함과 증오를 오가는 사이일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그렇다. 영화는 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소통을 그리는 영화다.

엄마와 딸은 드라마의 오랜 주제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0)에서 <82년생 김지영>(2019)까지 대개 엄마와 딸이 갈등을 겪지만 그래도 엄마는 딸을 보듬어주고, 딸은 엄마를 이해한다.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그러나 웬걸, 이 영화는 그런 전형성을 가볍게 뛰어 넘는다. 모녀는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며, 엄마는 섹시함을 버릴 생각이 없고, 딸은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영화는 모녀하면 응당 떠오르는 드라마의 각종 클리셰를 벗어던지고 날 것 그대로 모녀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생생한 리얼리티와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남긴다.

영화는 팬티 더미를 빠는 딸 이정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이정이 스스로 처음 속옷을 사는 모습에서 끝난다. 이정은 생리 중이다. 속옷과 생리, 두 가지 매개를 통해 우리는 모녀 관계의 역사를 유추할 수 있다. 속옷을 공유하는 것은 두 사람이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서로 알고 있고 위장이나 가식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의미다. 생리는 이정이 엄마 수경에 대해 기억하는 씩씩한 기본과 엄마의 아기가 되고 싶다는 두 가지 기분을 떠올리게 한다.

각자 직업을 가지고 단둘이 사는 모녀 수경과 이정은 사이가 매우 나쁘다. 활동적이며 다혈질에 친구가 많고 애인도 있는 엄마와 소극적인데다 느리고 말수가 없는 딸은 매사 다투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다툼이 있던 어느 날, 수경의 차가 이정을 향해 돌진하여 이정의 다리가 부러진다. 이정은 엄마가 고의로 자신을 쳤다고 생각하고, 수경은 급발진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 일로 둘은 법정에 갈 정도로 모녀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는다.

겉핥기만 하면 딸에게 심하게 매질하고 욕하는 엄마, 애정을 갈구하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딸, 두 사람 모두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난한 처지에 홀로 딸을 키워야 했던 엄마, 학대와 무관심에도 엄마와 간절히 소통을 원하는 딸, 두 사람 모두 이해할 수 있다. 대화를 할수록 의도가 빚겨가며 자꾸만 어긋나는 두 여자의 감정싸움은 영화에서 매우 역세고 사납게 묘사된다. 이런 표현은 이전 모녀 관계 영화에서 보기 드물었다.

수경은 결혼할 남자와 그의 딸과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정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동료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필요로 하지만 가장 증오하고 있는 이 모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두 사람은 아마도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딸은 엄마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하고, 엄마는 딸로부터 감사를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일은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남는다.

영화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의 결을 사소한데서 시작하여 증폭시키며 디테일하게 쌓아나간다.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인간관계 에피소드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 이후 파생되는 애정, 신뢰, 갈등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드라마를 풍성하게 만든다. 다양한 심리의 변화를 포착하는 섬세한 서사 전개는 양말복과 임지호라는 신선한 배우들의 현실감 넘치는 연기 앙상블로 인해 생생하게 다가온다. 여기에 깊이 있는 세심한 연출력이 더해져 관객의 몰입감을 효과적으로 끌어낸다. 놀라운 데뷔작이다.



진주의 진주

김록경 | 2022 | 89분 26초 | 극영화



시놉시스

영화감독 진주는 자신의 영화 촬영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촬영장소인 카페가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되어 막막해진다. 다행히 50년 전통의 카페 '삼각지 다방'을 선배의 소개로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곳은 지역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과 공연, 모임을 하는 곳으로 이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진주는 이곳 삼각지 다방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이곳 삼각지 다방도 곧 공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연출의도

한쪽에서는 도시개발, 현대화라는 이유로 옛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지어가고 한쪽에서는 레트로라는 명목으로 옛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아이러니한 개발 문화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개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싶다.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와 사람이 공간에 가지는 마음을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

BHIFF NOTE

사라지는 공간과 사람에 대한 기록 / - 정민아 영화평론가

영화감독 '진주'는 아버와의 추억을 담은 자전적인 영화를 준비한다. 그런데 촬영하기로 한 카페가 갑자기 공사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져 곤란함에 빠진다. 그녀는 선배의 소개로 도시 '진주' 일대의 카페를 찾아줄 지인을 알게 되는데, 그는 세련되고 힙한 진주의 명물 카페들을 진주에게 보여준다. 감독 진주의 도시 '진주' 여정은 그렇게 시작된다.

진주는 전통과 모던이 조화를 이루는 도회적인 카페를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녀의 계획은 자꾸 미뤄진다. 옛날 아버와 함께 갔던 진짜 다방스러운 다방, 낡고 촌스러워도 옛 정취가 풍겨나오는 사람냄새 나는 다방을 찾고 있던 것이다. 어느 날 진주의 눈에 재래시장 건물 한 곳에 위치한 50년 전통의 '삼각지다방'이 들어온다. 그녀는 한눈에 바로 그곳임을 알아차리고 조사에 돌입하지만, 다방주인은 이곳을 팔기로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다.

또다시 계획이 무산되거나 싶던 찰나, 삼각지다방은 지역 예술가들이 연극, 그림, 문학 등 창작활동 모임을 하는 오래된 터전이었던 바, 지역 예술가들은 자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다방의 공사를 막기로 결정한다. 진주도 이해관계가 있는 터라 이들과 행동을 함께 한다. 이들은 다방주인을 설득하고, 지역 문화유산 지정을 노리는 방법을 찾아본다. 결국 문화예술인은 예술을 행동의 도구로 해야하는 법. 연극인은 공연을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인은 노래를 만들어 온몸으로 삼각지다방의 사라짐에 저항한다.

애초에 진주는 영화 촬영이 목적이어서 다방을 로케이션 장소로 활용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화의 목적을 다시 생각한다. 영화는 기록이다. 사라지는 공간, 사라지는 사람, 사라지는 정취, 사라지는 풍경이 영화에 담긴다. 아빠와의 추억, 곧 없어질 공간, 그로 인해 차츰 달라질 풍경, 영화는 이것을 담아서 남기고 추억하게 한다. 이제 감독 진주가 목적을 가지고 향한 도시 진주가 아니다. 오래된 것이 새것을 품는 도시 진주가 걷는 사람 진주를 끌어안는 것이다.

영화는 경남문화창업협동조합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연출을 하고 각본을 쓴 김록경 감독은 배우를 겸업하는 감독으로 2020년 <잔칫날>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한국영화 부문 작품상 등 4개의 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장편 데뷔전을 치렀다. 장례식과 잔칫집이라는 대비되는 장소를 오가며 생계와 애도를 정신없이 치르는 주인공의 슬프고도 우스꽝스러운 여정을 통해 인생과 세상사의 아이러니를 훌륭하게 담은 감독이라 차기작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진주의 진주>는 규모가 작은 지역 영화지만, 영화찍기라는 에피소드를 통해 영화인으로서 자각하게 되는 공간의 의미를 묻는 메타 영화다. 신구가 어우러지는 진주라는 지역 소도시의 정겨운 풍경이 카메라에 세심하게 담긴다. 기록된 공간은 변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진주가 아빠와의 추억을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공간이 없어져도 거기에 있던 사람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듯이 영화도 그렇다.

셀 수 없이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그 모든 영화들은 당대를 기억하는 충실한 문화유산이다. 감독 진주는 삼각지다방 사건을 경험하면서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지게 된다. 그녀의 기억 속 아빠는 컬러영화가 주는 생생함처럼 눈을 감아도 화려하게 채색된 채 남아있다.

<진주의 진주>는 지역 문화예술 지원으로 존재감을 다지는 로컬영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로케이션이 필수인 영화에서 공간이 던지는 깨달음이라는 점에서 영화인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도가 많은 곳에서 지속되길 바라며 진정한 생태순환적 영화로서 응원한다.

신세계로부터

최정민 | 2022 | 99분 | 드라마



시놉시스

탈북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명선은 함께 탈북한 화신교 교주 신택으로부터 부활의 교리를 믿게 되고 두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로 정착지를 옮긴다.

연출의도

다양성의 범주가 규격화되고 있다. 규격에 벗어난 다양성은 인정받지 못한 채 고립되고 차별 받고 있다. 영화는 생존과 믿음을 고민하며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부여안고 위태롭게 서 있는 낯선 인간의 이야기이다.

BHFF NOTE

확신과 의심 사이 / -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최정민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 <신세계로부터>는 탈북하다가 아들을 잃은 탈북자 명선의 이야기다. 명선이 화신 火神, 그러니까 불의 신을 섬기는 교주 신택과 언제부터 함께 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찻집방에서 처음 등장한 명선과 신택은 이제 막 경남 고성에 있는 집을 어렵게 구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마친 명선은 동네 식당에 나가 일을 해서 몸이 불편한 신택의 수발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고, 신도를 모으기 위해 애쓴다. 명선이 신택을 돌보며 그의 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다. 화신을 믿고 준비하면 죽은 아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부활이라니, 신택은 사이비 교주임에 분명하다. 가끔 진짜 신과 소통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영 의심스럽다. 그저 어떻게든 명선을 자기 옆에 두고

싫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명선은 간절하다. 원래 사이비 종교는 인간의 간절함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영화는 사이비 교주 선택과 아들의 부활을 위해 어떻게든 10명의 신도를 모아야 하는 명선의 기묘한 여정을 따라간다. 백주대낮에 부활을 믿으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젊은 여자를 마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명선은 사람들의 편견과 핍박, 무시와 힐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전도를 계속한다. 명선이 전력을 다하자 놀랍게도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명선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들은 부활을 믿어야 하는 명선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들은 선택이 아니라 명선을 따라왔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명선의 간절함을 믿고 있다. 사실 명선도 선택을 믿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부활이 필요해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의 곁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세계로부터>는 믿음에 관한 영화다.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 서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 영화가 관객을 자꾸 헛갈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이 때문이다. 선택이 사이비 교주임을 확인할 때쯤 진짜 신과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우똥하게 만들고, 이 부활 의식이 사기라는 게 명확해질 무렵, 진짜 부활을 믿게 하는 단서를 던져 준다. 믿으려는 순간 의심하게 하고, 의심이 들 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다. 영화는 이렇게 의심과 확신, 믿음과 불신 사이의 좁은 틈을 파고들면서 관객을 시험한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영화의 마지막 반전이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까지의 고단한 과정을 기억해야 하는 영화인 것이다.

최창민 감독은 <프레스>와 <앵커>, 2편의 전작을 통해 이미 같은 주제를 집요하게 탐구해왔다. 2016년에 공개한 장편 데뷔작 <프레스>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전과자 영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영화는 영일을 궁지에 몬 다음 관객에게 전과자인 영일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질문한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연출한 그의 두 번째 장편영화 <앵커>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살고 있는 소녀 가장 한주에 관한 영화인데, 영화는 동생을 사라지게 한 후, 사라진 동생을 찾아다니는 한주의 고단한 여정을 담는다. 그 과정에서 영화는 한주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급기야 관객들이 한주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그로부터 3년 만에 돌아온 최정민 감독은 이번엔 부활이라는 종교적 소재를 가지고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세계로부터>는 최정민 감독이 <프레스>에서 보여주었던 강한 설득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관객을 시험에 들게 하기엔 부활이라는 소재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관객을 서사에 몰입시키는 데 자꾸 실패한다. 영화는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고, 반전을 거듭하지만 그 반전의 목표가 단순하다. 그렇다고 <신세계로부터>가

담고 있는 주제에 공감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프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앵커>를 경유하여 <신세계로부터>에 이르는 최정민 감독의 궤적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희미해진 동시대 풍경 속에서 감독이 천착해온 '믿음'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영화감독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영화를 만드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숙명처럼 확신과 의심,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껴안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세계로부터>의 아들의 부활을 원하는 명선의 간절한 마음은 7년간 세 편의 장편영화를 통해 지치지 않고 같은 주제를 탐구해온 감독의 마음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모든 영화가 다 수작이거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은 없다. 중요한 건 창작을 계속하는 것이고, 동료와 함께 창작을 지속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작품은 그 안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신세계로부터>가 명선 아들의 부활로 끝났듯, 최정민 감독도 다음 작품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

초청작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한국 고전영화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작품, 그리고 경남지역의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까지 다양한 초청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초청 1 - 장편 섹션에서는 한국 고전영화 3편과 올해 많은 영화제에 초청되어 화제를 이어가는 있는 독립영화 1편이 소개됩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한참 전,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선구적인 작품들과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 은곰상 수상작인 강대진 감독의 <마부, 1961>,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칸 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인 임권택 감독의 <춘향년, 2000>, 그리고 1987년 제44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한국 영화배우의 존재감을 알린 고 강수연 배우의 대표작 <경마장 가는 길, 1991> 등을 상영합니다.

더불어 신수원 감독의 최신작이자 이정은 배우가 주연으로 열린한 장편 독립영화 <오마주, 2021>가 상영됩니다.

1960년대에 활동한 한국 여성 영화감독 홍은원 감독의 작품 <여판사>의 필름을 복원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정을 그린 이 작품은 한국 영화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 감독의 발자취를 통해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영화가 어려운 시기에도 영화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버텨온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청 2 - 단편섹션에서는 각 지역에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며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4개 지역(전주, 대구, 광주, 울산)의 우수한 단편 4편을 모아 상영합니다. 또한 초청 3 - 패밀리섹션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본 세상을 재기발랄하게 포착한 11편의 단편영화를 모아 준비했습니다. 경남과 합천에서 직접 영화를 만든 초등학교 감독들의 영화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어 해외 어린이영화제에서 많은 수상과 초청을 받은 고명지, 고명준 남매의 단편을 함께 선보입니다.

마부

강대진 | 1961 | 97분 | 극영화 | 흑백



(자료제공처: 한국영상자료원)

시놉시스

짐수레를 끄는 홀아비 마부인 춘삼(김승호)은 고등고시를 공부하는 장남 수업(신영균)과, 언어 장애 탓에 못된 남편에게 맞고 쫓겨 오기 일쑤인 맏딸 옥례(조미령), 가난한 집안 형편에 불만을 품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작은딸 옥희(엄앵란), 도둑질을 일삼는 막내 대업 등 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마주(주선태) 집의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수원택(황정순)은 가난한 마부인 춘삼을 몰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둘 사이에는 애뜻한 감정이 오간다. 장남은 세 번이나 고등고시에 떨어지고, 큰딸은 남편의 학대에 못 이겨 한강에 투신해 자살하며, 작은딸도 부잣집 아들에게 농락당하는 등 온 가족이 시련을 겪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춘삼은 사장의 자동차에 말이 놀라 다리까지 다친다. 게다가 마주는 말을 팔겠다고 마부 일을 그만두게 한다. 수원택은 식모 일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그 말을 몰래 사서 춘삼에게 돌려준다. 마침내 장남 수업이 고시에 합격하던 날, 모두 모인 가족들은 수원택을 어머니로 모신다. 새로운 희망에 부푼 춘삼의 가족들은 눈이 내리는 중앙청 거리를 함께 걷는다.

BHFF NOTE

가난의 초상, 여성을 통한 가부장제의 복원 / 조지훈 -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강대진 감독의 <마부>는 1961년 2월에 개봉했으나, 이 영화의 배경은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쿠데타 사이 언제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던 정치적 격변기였고, 마차에서 자동차로, 한복에서 양복으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교육을 통해 엘리트가 된 세대가 최초로 등장하면서 전근대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충돌과 공존을 거듭했던 변화의 시기였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내느라 정신없었지만, 그만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과 삶의 에너지가 충만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마부>는 주인공 춘삼과 그의 가족들의 일상을 통해 이러한 당대의 시대상을 현실감 넘치게 담아낸다.

홀아비 춘삼(김승호)은 마주(주선태)로부터 말을 빌려 짐수레를 끄는 마부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회사에 소속된 트럭운전사쯤 될 것이다. 별이가 시원치 않아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들 둘 딸 둘, 4명의 자식들과 함께 그럭저럭 살고 있다. 지금의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장남 수업(신영균)은 벌써 세 번이나 시험에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을 볼 생각이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민이 많다. 말 못하는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맏딸 옥례(조미령)는 시집을 갔지만 맨날 못된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처가로 도망쳐 오는 신세다. 옥례는 춘삼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가난을 벗어나 신분 상승을 꿈꾸는 작은 딸 옥희(엄앵란)는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돈 많고 멋진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에서 우리를 춘삼의 집으로 안내하는 막내아들 대업은 맨날 싸움과 도둑질을 하는 말썽쟁이다. 이렇게 아직 밥값 못하는 자식들을 건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고단한 일상이지만, 춘삼에게도 가슴 뛰는 일이 하나 있다. 매일 드나드는 마주집의 식모 수원택(황정순)과 애뜻한 관계인 것이다. 수원택은 다른 마부들 몰래 가난한 춘삼을 몰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춘삼과 수원택은 데이트를 즐기며 애정을 키워간다.

<마부>가 담아내려고 하는 건, 무엇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전통적 의미의 아버지의 모습이다. 춘삼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무능, 나아가 남성들의 무능이 드러난다.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직업적 가치가 하락한 춘삼의 별이로는 온전히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다. 빌린 돈도 자신의 힘으로 갚지 못한다. 그는 영화 내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자신의 마차와 마주의 자동차가 부딪치는 은유적 사고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수원택이 없었다면, 그는 결국 말을 잃고 실직했을 것이다. 아들들도 마찬가지다. 시험에 세 번이나 떨어진 장남은 착하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막내아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매일같이 도둑질이나 하는 철부지일 뿐이다.

하지만 영화 속 여성들은 다르다.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강인하고 생활력 강한 여성들이다.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한 첫째 딸은 결국 한강에 몸을 던짐으로써 폭력에 저항한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은 슬픈 일이지만 가장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둘째 딸은 신분 상승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결혼으로 팔자를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한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여성들은 항상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낸다. 이 영화의 중심인 수원택도 마찬가지다. 수원택은 부잣집의 식모로 살아가지만,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여성이다. 수원택은 춘삼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동시에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함께 살려준다. 수원택이 없었다면, 장남이 시험에 합격하는 해피 엔딩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침내 장남 수업이 고시에 합격하던 날, 그동안 모인 적 없던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수원택을 어머니로 받아들인다. 무능



하지만 착한 아버지는 아들의 구직과 능력 있는 어머니의 귀환으로 다시 가장의 자리를 찾고 가정은 복원된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여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영원히 옥죄 가부장제를 보호하고 가장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애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부>는 기본적으로 1960년대 초반 급변하는 한국 사회를 살았던 어느 가난한 가족의 사실주의적 초상이며,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옹호하는 강력한 가족주의 영화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한 아버지 세대의 무능을 증명하고, 동시에 능력 있는 여성이 가족주의와 가부장제를 복원시키는 아이러니한 과정을 담아낸 일종의 유사 여성주의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마부>를 연출한 강대진 감독은 대학에서 영화연출 교육을 받은 1세대 영화감독으로, 신상옥 감독의 연출부를 거쳐 당시 유행하던 멜로드라마 장르로 영화 경력을 시작했다. <마부>는 그의 네 번째 영화이며, 이 영화로 베를린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서구 영화계에 한국영화를 알린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춘향년

임권택 | 2000 | 135분 | 극영화 | 컬러



<자료제공처: 한국영상자료원>

시놉시스

서울의 정동극장, 무대에 명창 조상현이 올라오고 '춘향전' 공연이 시작된다. 조상현의 소리에 맞춰 화면은 조선 시대의 한 관아로 바뀐다. 단오절, 남원부 자제 이몽룡(조승우)은 방자(김학용)를 앞세워 광한루 구경을 나서고, 그곳에서 그대를 타고 있는 춘향(이효정)을 만난다. 그날 이후 춘향을 보고 싶은 몽룡은 야심한 밤, 춘향의 집을 방문한다. 몽룡은 춘향 어머니 월매(김성녀) 앞에서 춘향에게 '불망기'를 써 사랑을 맹세한다. 첫날밤을 보낸 후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가지만 몽룡은 동부승지 당선하여 한양에 가게 된 아버지를 따라 남원을 떠나야 하고, 몽룡과 춘향은 서로의 거울과 가락지를 나누는 후 이별한다. 새로 부임한 변 사또(이정현)는 남원골 절색 춘향에게 수청 들기를 강요한다. 춘향은 수청을 거부하고, 변 사또는 춘향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옥에 가둔다. 한편 한양에서 장원급제한 몽룡은 암행어사로 다시 전라도로 온다. 변화도의 폭정과 춘향의 고초를 알게 된 몽룡은 그날 밤 거지 행색으로 월매와 옥에 갇힌 춘향을 찾는다. 변화도의 생일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틈에 암행어사 출도가 붙여지고, 몽룡은 변화도를 비롯한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응징한다. 춘향은 풀려나고, 월매와 동네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화면이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오면, 조상현의 소리와 함께 추임새를 넣는 관객들의 소리가 어우러진다.

BHIFF NOTE

봄과 청춘의 찬미, 임권택의 <춘향년> / 이용철 - 영화평론가

세기가 바뀔 즈음에도 칸영화제는 한국영화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국제영화제의 위계에서 칸영화제는 베를린영화제, 베니스영화제와 함께 3대 영화제로 불리는데, 셋 중 칸영화제가 가지는 위상은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것이다. 베니스영화제, 베를린영화제와 비교해 닫힌 문을 열지 않았던 칸영화제는 2000년, 황금종려상을 놓고 겨루는 경쟁부문에 드디어 <춘향년>을 초청한다.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왜 <춘향년>인가?'라는 질문은 필요가 없다. <춘향년>은 한국영화의 자

의식이 폭발하던 시기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박스오피스의 돌풍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일궈냈다. 한국에서도 몇몇 국제영화제가 닷을 올려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대단한 영화 팬이 아니더라도 영화 잡지를 팔에 끼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지금 즈음이면 칸영화제에 도전해도 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무뎠 형성되었을 때, 임권택은 한국 예술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당연히 첫 번째로 거론되는 주자였다. 게다가 <장군의 아들> 시리즈와 <서편제>로 대중의 사랑과 주목을 받았던 바, 그들 영화를 제작했던 태흥영화사로서는 임권택 감독과 함께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한국영화사에서 '춘향전'은 흥행과 기술 면에서 한국영화사의 여러 기록과 뒷이야기를 보유한 작품이다. 특히, 신상옥과 최은희의 <성춘향>과 홍성기와 김지미의 <춘향전>이 맞붙은 1961년 설 시즌의 대결은 지금도 회자되곤 한다. 그렇게 대중적인 작품이지만, 임권택은 다소 실험적이면서도 어찌면 마땅한 길을 선택했다. 이 작품을 원전 판소리에 가까운 버전의 영화로 만들겠다는 것. 그의 선택은 그동안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영화 산업을 이끌어 온 '춘향전'의 여러 시도 중에서도 특별하다 하겠다. 판소리는 익숙한 장르이면서도 현대 관객에게 만만한 대상은 아니다. 우선 사용하는 언어가 현대의 그것과 많이 달라 자막의 도움을 받아야 할 판이고, 창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영화의 관객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판소리 공연 자체를 재현해 일부분을 무대극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떤 관객에게겐 어색했을 게다. 창을 부르는 조상현도, 명사들이 TV 프로그램을 장식하던 1970, 80년대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라는 점도 2000년대의 젊은 관객에게는 별 관심의 해당 사항이 못 되었다. 영화의 초반에 등장하는 대학생들의 대화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감독의 염려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임권택이 취한 <춘향전>은 옳다. 남도 사투리 특유의 간드러지는 리듬에 몸을 맡겨 보면 그 의미를 절로 알게 된다. 매 대사가 시구처럼 꽃답다. 무릎을 치며 웃다가도 이어지는 장면에선 눈물을 훔치기 마련이다.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판소리 양식이, 극히 눈부신 이미지와 만나 이룩한 경지는 과연 노장의 이름에 어울리는 것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즘 영화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장르영화 사이에서 긴장감 넘치는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임권택은 1990년대 중반, 탐미적인 경향의 작품군에 천착한다. 거장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작품으로 답해야 한다는 심리도 작용했을 터, <서편제>에서 <죽제>, <춘향전>을 지나 <취화선>, <천년학>으로 이어지는 작품군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춘향전>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보적이다. 탐미, 즉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라질 것에 대한 곡진한 마음 자세다. 그것이 퇴폐적이지 않은 것은, 가장 찬란한 시기를 곱게 그려내는 것인즉, 삶의 찬미이기 때문이다. 성숙하고 고아한 사랑도 좋지만, 이팔청춘 꽃과 같은 시기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임권택의 <춘향전>이 목표하는 지점이다. 붉은 잎, 붉은 입술, 그리고 붉은 사랑, 이게 역측이라 생각된다면, 칠순에 다가선 임권택이 무어 부질없는 사랑을 찾

아 십대가 지나기 전의 배우를 찾아 해냈는지, 질문해 보면 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임권택이 해석한 <춘향전>은 봄과 청춘의 찬미다. 영화의 초반, 화통한 목소리의 조상현이 어느 단옷날을 배경으로 숨넘어가듯 부르는 노랫가락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 노래는 '광한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고 주장한다. 왜 그러한가. '오작교가 분명하면 견우직녀 없을쏘냐. 견우성은 내가 되려니와 직녀성은 게 뉘가 될그냐' 가슴 두근거리는 이야기의 시작점인데, 종종 간과하고 넘어가기 십상인 극의 핵심이자 백미다. 누구나 들어보았음직한 사랑가 장면의 요염함이나, 이별하는 장면의 애달픔도 저 출발점이 없다면 공중누각이다. <춘향전>의 클라이맥스 또한 수절한 춘향이 득한 절개에 있음이 분명하지만, 거꾸로 판단해 청춘의 아름다움이 바탕이 되었기에 깊고 진실한 가치를 얻는 것이다. 단옷날에 마음을 정한 몽룡은 나귀를 몰아 춘향의 집으로 향한다. 달이 밝은 밤, 방자를 앞세운 몽룡이 춘향의 단아한 초가집 초입에 들어서서 장편의 낭만은 또 어쩔 거냐. 죽어도 지키고 싶은, 그래서 되돌아가 찾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낭만이다. 이보다 낭만적인 장면은 수천 영화를 뒤져봐도 구하기 힘들지 싶다.

경마장 가는 길

장선우 | 1991 | 138분 | 극영화 | 컬러



시놉시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R(문성근)은 파리에서 동거했던 여자 J(강수연)와 재회한다. 그러나 웬일인지 J는 R과의 섹스를 거부한다. 화가 난 R은 고향인 대구로 내려간다. R은 오랜만에 아내(김보연)와 자식들과 만나지만,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환멸스럽기까지 하다. R의 머릿속은 온통 J와의 섹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R은 출장차 서울에 올 때마다 J를 만나지만, J는 프랑스가 아니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섹스를 거부한다. R은 J가 자신이 써준 논문으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고 또 한국에서 자신의 글로 문학비평가로 데뷔까지 했지만 자신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J를 비난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R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J에게는 한국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R은 다시 J에게 배신당한다.

BHIFF NOTE

한국 멜로드라마의 새로운 길, 장선우 감독의 <경마장 가는 길> / 이용철 - 영화평론가

하일지가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했다. 당시로선 다소 난해한 성향의 작품이었으나, 1990년대 극장계에 불었던 문화적 욕구는 이 작품의 흥행에도 일조했다. 원작이 문체와 구조 측면에서 주목받았듯이, <경마장 가는 길>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음성 및 대화다. 태생적으로 영화는 오디오적 콤플렉스를 지닌 매체인데, 한국처럼 영화산업이 늦게 발전한 나라에선 열악한 오디오의 해결이 오랜 숙제였다. 영화는 이미지의 예술이다. 그런데 이 영화를 떠올리면 먼저 기억되는 것은 강수연, 문성근, 김보연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성우가 후시로 녹음한 영화가 극장에 걸렸음을 감안하면, 주연을 맡은 강수연과 문성근이 또렷하게 녹음한 음성은 일취월장한 수준이었다. 소설의 문체처럼, 영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 알게 된 셈이다. 음성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은 대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주인공 R의 친구)의 건조한 앞뒤 내레이션은 원작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 내레이션의 화

자가 대체 극 중 어떤 시점인지 알 수 없다는 것부터 수상하다. 대화의 결정적 재미는 당연히 주인공인 R과 J에게서 나온다. 그 유명한 R의 대사 - 너 그동안 남자 생겼니. 그럼 왜 이러느냐, 너의 이러한 행동의 이데올로기는 뭐냐. - 로 대표되는 기이한 어투와 J의 전형적인 서울 여성 말투는, 문성근의 힐난조 및 강수연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결합하면서 극한의 매혹을 발휘한다. 거기에 R의 아내 입에서 나오는 거친 경상도 사투리는, 외국에서 돌아온 R이 맞서려고 애쓰는 한국적 현실을 대변한다. 이러한 오디오적 특성은 단순히 영화적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이 영화의 장르적 태도와 결합하면서 미증유의 멜로드라마를 완성한다.

멜로드라마라고? 당시엔 원작을 따라 포스트모더니즘 영화라고까지 불렀던 영화인데 전형적인 멜로드라마라니. 그런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적어보면 극장과 TV에서 보았던 멜로드라마와 별로 다를 게 없다. R과 J는 프랑스에서 3년 반의 시간을 동거했다. 그동안 R은 J의 논문을 대신 써줬고, J가 귀국한 뒤 뒤늦게 자신의 논문을 완성한 R도 한국으로 돌아온다. 비밀이 들뜬날까 두려운지 J는 프랑스에서와 전혀 판판으로 행동한다. 경상도에 사는 가난한 가족과 노쇠한 부모가 부담스러운데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로 인해 짜증이 난 R은 J에게 다시 외국으로 가자고 종용한다. 프랑스와 문학박사라는 소재만 빼면, 두 여자 사이에서 온갖 장벽을 헤쳐 나가야 하는 R은 전통적인 멜로드라마의 인물로 기능한다. 그런데 이 영화가 멜로드라마로 보이지 않는 것은, 장선우가 멜로드라마의 전형성을 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조한 멜로드라마의 형식을 쓰고 싶은 것인지 잘 알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한다. 기실 이건 루이스 브뉴엘의 <육망의 모호한 대상>이 멜로드라마에 가한 충격과 같은 작품이다. 오죽하면 <경마장 가는 길>은 멜로드라마라기보다 입으로 쓴 로드무비처럼 보이기도 한다. 분명한 사실은 <경마장 가는 길>이 한국 멜로드라마에 혁명적인 매스를 갖다 댔다는 점이다. 일례로, 장선우는 놀랍게도 그 시기에 이미 멜로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드러내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감지했을 뿐만 아니라, J와 아내라는 두 여성을 통해 그것을 해체하도록 행동하게 만든다. J와 아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두 인물은 영화 내내 R의 허세를 까발린다.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데, 어떤 면에서 봐도 R은 두 여성에게 원했던 바를 조금도 얻어내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등장해 리얼리즘 영화로 사회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견지했던 장선우에게 <경마장 가는 길>은 노선의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작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원작과 연결해 포스트모더니즘 계열로 읽는 건 지나치다. 굳이 말하자면 이 영화는, 위에 언급했듯이 모더니즘 계열의 영화로 보는 게 맞다. 그런 가운데 장선우는 몇몇 삽입 장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방 장면에서 껌을 팔러 다니는 소년, 밤거리에서 손님에게 인사하는 유흥업소 종업원, 엔딩에 나오는 노인들처럼 영화의 줄거리와 상관없는 인물들을 문득 바라본다. 카메라가 그들로부터 눈을 돌리기도 전에, R은 차갑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들의 존재를 외



면한다(엔딩의 노인에 도착해서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서울과 한국의 풍경과 인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 <경마장 가는 길>에 등장하는 지식인의 초상은 오히려 이후의 시간을 통해 더 확인되고 증명되었음을 기억한다. 허위로 얻어낸 학력과, 그것에 얽힌 구차한 변명과, 학문보다 돈과 명예에 더 종속되는 지식인,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권력층이 꾸민 웃지 못할 코미디를 우리는 21세기 내내 목도했다. <경마장 가는 길>은 예언서가 아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그 영화적 매력만큼이나 존재감을 잃지 않는 것은 장선우의 탁월한 시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가 정작 21세기 영화판에서 힘을 잃어버린 현실이 또 한편의 코미디이지만 말이다.



오마주

신수원 | 2022 | 108분 | 극영화 | 컬러



시놉시스

"끝까지 살아남아"

엄마 영화는 재미없다는 아들과 늘상 밥 타령인 남편, 잇따른 흥행 실패로 슬럼프에 빠진 중년의 영화감독 지완. 아르바이트 삼아 60년대에 활동한 한국 두 번째 여성 영화감독 홍은원 감독의 작품 <여판사>의 필름을 복원하게 된다.

사라진 필름을 찾아 홍감독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던 지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자 쓴 여성의 그림자와 함께 그 시간 속을 여행하게 된다.

BHIFF NOTE

살아남을 것이다. 꼭 그럴 것이다. 신수원 감독의 <오마주> / 조지훈·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신수원 감독은 2009년 장편영화 <레인보우>로 데뷔했다.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이기도 했던 이 영화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영화감독의 꿈을 선택한 기혼 여성 감독 지완의 좌충우돌 악전고투 첫 영화 제작기다. 좀처럼 이를 수 없는 영화연출의 꿈을 쫓는 감독지망생 엄마의 고단한 일상과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아들이 밴드를 만들어가는 성장담을 유쾌하게 포개놓은 이 영화에서, 꿈은 제목처럼 무지개빛 희망이고 삶을 추동하는 강력한 에너지다. 이때만 해도 그랬다.

2009년으로부터 약 23년의 시간이 흐른 후, 신수원 감독은 <레인보우>(2009)에서 영화감독의 꿈을 꾸었던 지완을 2022년 영화 <오마주>에 다시 등장시킨다. 이제 중년이 된 영화감독 지완은 그동안 몇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상도 받으면서 나름 영화계에서 인정받는 감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레인보우>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했고, 돈 문제로 여전히 남편에게 구박받고 있으며,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무시와 애정, 걱정이 뒤섞인 시선은 <레인보우>의 중학생 아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유야 늘 같다. 창작은 그 자체로 경제성이 없는 일이고 그래서 창작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삶은 고달프기 쉽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영화감독인 줄은 알아도 그의 영화를 본 적이 없고, 가족에게는 맨날 돈 안

되는 영화나 만드는 감독일 뿐이다. 더구나 이제 막 개봉한 그의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다. 23년 전 <레인보우>에서 무지개빛 꿈을 꾸었던 지완은 이제 힘들게 이룬 꿈을 계속 꾸어야 할지 고민한다. 이제 꿈은 희망이 아니라 들기엔 무겁고 쉽게 버릴 수도 없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 되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누구나 그동안의 인생을 통째로 복습하고 싶어질 것이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시기가 한 번씩 찾아오지만, 이번엔 그렇게 쉽게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완은 운명처럼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한국의 두 번째 여성 영화감독이었던 홍은원 감독의 1962년 연출작 <여판사>의 사운드복원을 의뢰 받는다. 적은 돈이라도 필요했던 지완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돈은 안되지만 의미가 있는’ 이 복원 작업을 맡기로 한다. 그리고 우연히 확보한 사진을 단서 삼아 세상을 떠난 홍은원 감독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며 유실된 사운드와 함께 삭제된 영상을 함께 찾기로 한다.

하지만 지완이 찾아야 하는 건 <여판사>의 유실된 사운드와 영상만이 아니다. 지완은 요즘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복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오랜 동료는 영화를 그만두었고, 건강 이상으로 자궁을 잃었다. 남편은 자기를 포기한 것 같고, 아들은 이제 집을 떠날 것이다. 돈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완은 이 모든 이유가 자기가 영화를, 그것도 돈이 안 되는 영화를 오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가지 일을 오래하면 누구나 자기 확신과 자기 의심 사이에서 줄을 탄다. 자기 확신이 커지면 일은 즐거워지고, 자기 의심이 커지면 일이 두려워진다. 지완은 지금 너무 커져버린 의심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발견된 자살한 여성과 집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올 기미가 없는 옆집 사람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 그들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해온 연출 일에 어느 순간 의심을 하게 된 영화감독 지완이 70년 전 자기 의심과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영화감독으로서 삶을 살아냈던 선배 여성 영화감독 홍은원의 환영과 함께 그가 남긴 영화를 복원해나가는 이 영화는 과거의 소중한 영화 유산을 되살리는 아름답고 뜻깊은 여정일 뿐 아니라, 가혹한 현실 속에서 너무 커져 버린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확신을 다시 키우는 지완의 자기 치유와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이 과정은 잘 늘지 않는 지완의 수영 실력처럼 쉽진 않을 테지만, 중요한 건 지완이 수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23년 전 <레인보우>의 지완은 5년간 시나리오만 쓰면서도 끝까지 꿈을 선택했던 이유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건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였다. <오마주>의 지완은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과 결과에 크게 연연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대한 영화

를 계속 만들어 왔을 것이다. 홍은원 감독의 동료였던 편집기사가 지완이 새롭게 찾아내어 되살린 영상 속 홍 감독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지막이 내뱉은 “자넨 끝까지 살아남아”라는 말은 이렇게 성장해온 지완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처럼, 선배의 애정 가득한 조언이다.

신수원 감독은 <오마주>를 통해 1962년 <여판사>의 홍은원 감독과 2009년 <레인보우>의 지완과 2022년 <오마주>의 지완을 가장 영화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한자리에 모아 한 명씩 오버랩시킨다. 거기엔 <오마주> 속 편집기사의 자리도, 지완과 닮은 신수원 감독의 자리도, 감독을 꿈꾸는 다른 후배의 자리도, 이 글을 쓰는 나의 자리도 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완은 분명히 다시 영화를 만들 것이고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꼭 그럴 것이다.

마음에 들다

강지이 | 2022 | 22분 18초 | 극영화



시놉시스

오늘 학교에 가지 않은 고등학생 은하는 이모네 집에 들렀다가 이모에게 온 엄마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된다. 엄마는 요새 은하가 꼴 보기 싫다는 얘길 하는데, 은하는 엄마의 마음에 들고 싶다.

연출의도

아이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특히 엄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엄마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싶었던 내면아이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엄마의 말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부정당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BHIFF NOTE

제인 캠퍼온 감독은 <피아노>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내면을 '피아노'로 표현한 바 있다. <마음에 들다>의 피아노도 은하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하기에 <피아노>의 영향이 엿보인다. 한편으론 어머니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버려졌기에 자신도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상징한다. 이렇듯 <마음에 들다>는 혼란 엄마와 딸의 갈등 구조에 중의적 의미를 지닌 요소들을 집어넣어 고유성을 얻는다. 또 다른 예는 '자전거'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에게서 벗어나려는 소소한 저항이면서 동시에 엄마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서투른 몸짓처럼 읽힌다. 타인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은하의 변화로 본다면 제목 역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곱씹을수록 촘촘함이 느껴지는 각본이다. _이학후

야행성

박지수 | 2022 | 25분 44초 | 극영화



시놉시스

열여덟 해원은 엄마를 외롭게 하는 아빠가 밉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하영은 유일한 가족이던 아빠마저 죽은 후에 혼자 남게 되는데,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둘은 철없는 어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한다.

연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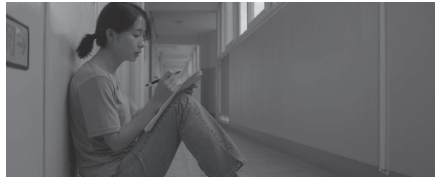
참으면 병 된다.

BHIFF NOTE

<야행성>은 해원이 영화 <400번의 구타>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몇 차례 나오는 <400번의 구타>는 단순한 인용을 넘어 <야행성>의 중요한 모티프로 기능한다.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가 싫은 해원과 유일한 가족인 아빠를 잃은 하영은 어른들에게 받은 위선과 상처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는 '야행성'이다. 두 사람은 <400번의 구타> 속 인물들처럼 학교를 빼먹고 거리를 배회하는 통에 보통의 학생과 다른 취급을 받는 '야행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영화의 마지막은 다르다. <400번의 구타>가 숨 가쁘게 달리던 주인공이 해변에서 멈추는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다면 <야행성>은 어두운 밤의 행성 '야행성'이 지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중요치 않다. 기성세대의 변화를 촉구했을 따름이다. _이학후

연기연습

이경호 허지은 | 2021 | 12분 06초 | 극영화



시놉시스

영화 촬영 열흘 전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버린 배우 '지희'에게 캐스팅 교체 결정이 내려진다. 속상한 와중에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기로 한 후배 '정은'이 찾아온다.

연출의도

코로나의 시대, 우리는 각자 간혀 자신의 세계를 사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다.

BHIFF NOTE

코로나19는 영화 창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면 봉쇄와 랜선 미팅을 호러물로 그린 <호스트: 집속금지>와 코로나23 출현을 상상한 <락다운 213주>가 장르와 소재로 수렴한 경우라면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오는 <매드 러크 뱅잉>과 소수 인원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한 <벤>은 제작 현실이 반영된 사례다. 자가격리를 소재로 삼은 <연기연습>도 팬데믹 시네마에 속한다. 갇힌 상황을 소재로만 소비하지 않고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진 <렛 미 인>의 생존을 위한 호흡, 홀로 살아가는 고독감, 타인의 영역에 들어갈 때 허락받아야 한다는 설정을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고립으로 재해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여성의 연대에 관심을 가졌던 감독들답게 어떤 방식으로 여성 서사를 발전시키는지도 주목하시길 바란다. _이학후

영미 사진관

김동찬 | 2021 | 27분 | 극영화



시놉시스

남편과 사별 후, 함께 운영하던 사진관을 정리하려 시골로 내려온 영미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는 이상한 할머니 행자를 만난다.

연출의도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 낯선 이에게 받는 위로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BHIFF NOTE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사진관은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 시절 동네사진관은 한 인간의 순간과 거기에 깃든 감정을 기록하는 공간이었다. <영미 사진관>도 해안가에 위치한 동네사진관을 무대로 펼쳐진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예정된 죽음과 마주하는 과정이라면 <영미 사진관>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런데 상실감에 빠진 영미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할머니가 '해녀'란 설정은 의미심장하다. 해녀의 물질은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된 일이자 항상 죽음과 가까이 한 위험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한평생 맨몸으로 바다와 싸운 할머니와 슬픔과 맞서야 하는 영미가 마치 거울처럼 마주 보거나 때론 옆에 있는 장면들을 사진 삼아 여성의 연대와 성장의 사진첩을 채워가는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_이학후

소풍

고명지 고명준 | 2017 | 3분 45초 | 극영화



시놉시스

소년이 어린 시절의 소풍을 떠올린다.

BHIFF NOTE

학교를 가기 싫은 소년이 어릴 적 소풍의 보물찾기 추억을 떠올리는 작품으로, 어른들도 그 시절의 '소풍'을 추억할 수 있는 영화.

할머니의 전쟁

고명지 고명준 | 2018 | 6분 50초 | 극영화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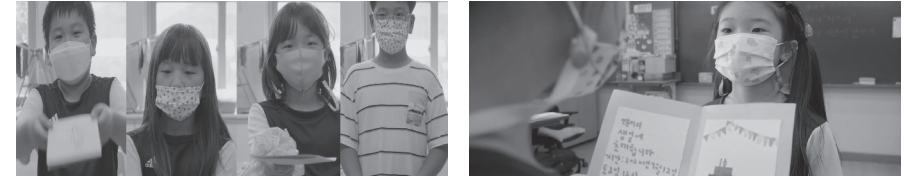
전쟁놀이에 빠진 소년,
우연히 할머니를 만난다.

BHIFF NOTE

우연히 한국전쟁의 상처를 지닌 할머니를 만난 소년,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아이들만의 시선으로 만든 반전(反戰)영화.

춧불

정선윤 외 8인(창원시 봉강초교) | 2020 | 2분 | 극영화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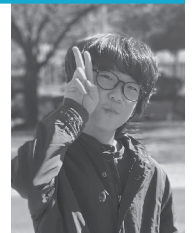
생일파티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문제다.

BHIFF NOTE

코로나19로 인해 생일파티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깜찍하면서도 귀여운 상상이 돋보이는 작품.

우리들의 일그러진 일상

이도건 외 9인(양산시 용연초교) | 2021 | 5분 30초 | 극영화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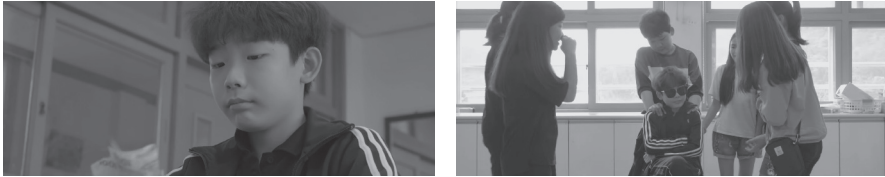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학교생활의 모습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담았다.

BHIFF NOTE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

빛나는 날들

홍도운 외 6인(창원시 봉강초교) | 2020 | 8분 | 극영화



시놉시스

선글라스를 쓰고 싶은 소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다.

BHIFF NOTE

"나 돈 좀 빌려줄래?" 선글라스를 갖고 싶은 소년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혹독한 성장통을 겪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

재활용

박동제, 송은혜, 하수린, 허예진, 황석희, 전하람, 배동규, 이민정, 김예랑 (합천가야초교) | 2021 | 2분 | 극영화



시놉시스

재활용은 어려운 일이다.

BHIFF NOTE

환경을 위해 재활용의 필요성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작품.

할아버지의 생일

고명지 고명준 | 2019 | 5분 | 극영화



시놉시스

할아버지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는 소년이 할아버지로 변신한다.

BHIFF NOTE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뜻하게 전해지는 작품.

패밀리 디너

고명지 고명준 | 2022 | 4분 | 극영화



시놉시스

가족과 함께 먹을 피자 소스를 종류별로 준비하는 소년의 하루.

BHIFF NOTE

대화가 사라진 현대 가족의 단면을 세심하게 포착한 작품.



연기

정재원(창원시 봉강초교) | 2020 | 2분 | 극영화



시놉시스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은 소년, 흡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BHIFF NOTE

흡연의 유혹과 꿈,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년을 통해 청소년 흡연의 문제를 다룬 작품.

분리배출

유지희, 하현, 장근녕, 김인나, 허준석 (합천가야초교) | 2021 | 2분 20초 | 극영화



시놉시스

분리배출을 위한 엉뚱한 상상.

BHIFF NOTE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작품.



1에서 온 여자, 6에서 온 남자

이지연 외 4인(창원시 봉강초교) | 2020 | 13분 | 극영화



시놉시스

1학년과 6학년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의 운명이 뒤바뀐다.

BHIFF NOTE

서로 원하지 않았던 1학년과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두 선생님이 각자 학급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 저학년과 고학년의 고충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작품.

합천 **가**려한 영화제

Beautiful Hapcheon Independent Film Festival

조직위원장 _ 김윤철 합천군수

집행위원장 _ 유순희

합천 수려한영화제 사무국

프로그래머 - 이형석
기획초청팀장 - 홍성은
홍보팀장 - 이상정
운영팀장 - 문상호
홍보운영지원 - 엄윤희
회계운영지원 - 심재현

영사 및 기술팀 - 진미디어
책자디자인 및 인쇄 - 가람 디자인

(사)합천군관광협의회

강길수 이사장
이정훈 사무국장
문연자 간사
여인혁 사원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Review 리뷰 필자

이용철 - 영화평론가
정민아 - 영화평론가
서성희 - 영화평론가
조지훈 -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영조 - 영화감독/예심위원
박송열 - 영화감독/예심위원
한인미 - 영화감독/예심위원
김은정 - 영화평론가
이학후 - 영화평론가
이형석 - 프로그래머
유순희 - 집행위원장

제3회 합천 관객심사단 명단

심재현, 김채원, 정상훈, 이태훈, 박수민, 송채연, 윤준희,
이수진, 진선미, 이승욱, 오보람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자원활동가 명단

이흥기, 윤필순, 정은숙, 오순란,
허말선, 성상경, 김초이, 서유빈

합천군 관광진흥과

- 유성경_관광진흥과장
- 이순덕_관광행정계장
- 이신환_관광개발계장
- 강봉자_관광마케팅계장
- 정해규_대장경파크계장
- 이현진_관광행정 주무관
- 이주호_관광행정 주무관
- 김상원_관광개발 주무관
- 이수훈_관광개발 주무관
- 정웅진_관광개발 주무관
- 이영경_관광마케팅 주무관
- 최민철_관광마케팅 주무관
- 이고은_관광마케팅 주무관
- 정성용_대장경파크 주무관
- 윤인선_대장경파크 주무관
- 여현경_대장경파크 주무관

도움 주신 분들

- 박정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 계장
- 한점숙 연우기획 대표
- 이중엽 디자인팩토리 대표
- 정선규 가람 대표
- 이소연 가람 디자인
- H 크리에이티브 그룹 배세웅 대표
- H 크리에이티브 그룹 서정완

- 김숙자 카페 체리향기 대표
- 서은희, 최세철 카페 우비정 대표
- 김육란 합천호관광농원 대표
- 강재성 합천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대표
- 이성원 합천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 장문철 (주)합천유통 대표
- 이선돌 (주)합천유통 상무
- 이재근 (주)합천새천년관광 대표
- 도영환 합천황강종합렌탈 대표
- 김진철 합천인쇄 대표
- 서재교 드림이벤트 대표

- 조수일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신상근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장
- 하경호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 과장
- 김정유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영상테마파크 전기시설 담당



합천시네마는

농촌지역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합천군이 2016년 7월에 설립한
공공영화관입니다.

합천읍 사회복지관 맞은편에 위치에 있으며
주민 누구나 최신 개봉 영화를 저렴한 요금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년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락처_ 50232 경남 합천군.읍 남정길76 (전화) 055-932-7053

2023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

각 부분별 단편영화 1편의 제작비 500만원 지원

[한국]

자격: 단편영화 연출 경험이 있는 한국인 감독
접수: 2022. 10. 12 ~ 2022. 11. 12

[부산]

자격: 단편영화 연출 경험이 있는 부산거주 감독
접수: 2022. 10. 12 ~ 2022. 10. 31

www.bisff.org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개막을 축하합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Umu Mountain Film Festival

www.umff.kr | I. @umff.kr | F. umff.ulju

DAEGU INDEPENDENT SHORT FILM FESTIVAL 23rd

대구단편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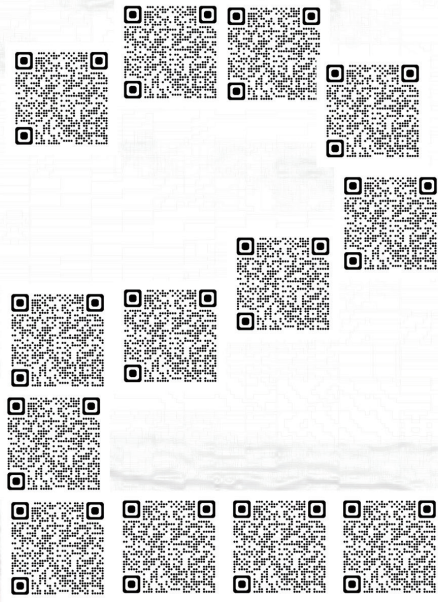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CGV 대구 아카데미

2022.08.24-29

The 2nd Muhak Mountain Film Festival

제2회 무학산영화제

무학산영화제
2022년 7월 2일(토) - 3일(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69
신추산아파트상가



2022
07.02
SAT

신추산아파트상가

2022
07.03
SUN

·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69 ·
Mumun-gil 169, Masanhappo-gu, Changwon-si

주최 Organized by

마산영화구락부

kofic

영화진흥위원회

mdie
ground

협력 Cooperated with

신주산공동체

무학

MASANAI
WORKS

문의

010 5640 0830
@masanfilmclub

미디어센터내일



CONTACT 055. 748. 7306

미디어·영화교육 | 영화후반작업 | 영상제작

찜오영화제

[11/4] 16:30 <성덕>

[11/5] 13:30 <콩나물>, <손님>
16:00 <니얼굴>

롯데시네마 엠비씨네 진주
경남 진주시 가호로 13 MBC 경남 영화관 건물



COMING SOON



합천군시설관리공단

HapCheongu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합천군시설관리공단**
HapCheongu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https://www.hfmc.or.kr>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 1층
TEL : 055-933-7729 | FAX : 055-933-5679
E-mail : hfmc1000@hfmc.or.kr

함 나 모 함 보 와 자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슬로건은 '함 - 함께 나와 보자다.'

'합'천과 '슴(더할 합)'을 담은 '함'은 영화인들과 관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영화제라는 축제 안에서 다함께 '함'을 도모하자는 포부를 담았다. '함께 나와 보자'는 '나와 함께'의 의미도 있지만, '나와서 보자'의 의미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자는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다짐이자 응원이다.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국내 최고의 특화된 시대물 세트장이며, 지역 영상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전국의 우수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과 영화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 축제의 장이다.

INFORMATION 합천 수려한영화제

Beautiful Hapcheon Independent Film Festival

Address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Website www.bhiff.co.kr

E-mail bhiff2020@daum.net

Facebook www.facebook.com/BHIFF2020

Instagram www.instagram.com/bhiff_official

2022. 10. 20.(목) ~ 10. 2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극장, 작은 영화관 합천시네마